

2017 UNGC COP

2017 UNGC COP 기술보증기금

2017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CONTENTS

2017 UNGC COP 기술보증기금

4차 산업혁명의 미래
기보가 열어갑니다!



	CEO 인사말	04
01	1장 / 경제 동향	06
	제1절 세계경제	08
	제2절 국내경제	12
	제3절 향후 경제전망	15
02	2장 / 중소·벤처기업 동향	16
	제1절 중소기업	18
	제2절 벤처기업	19
	제3절 이노비즈기업	21
03	3장 /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22
	제1절 개요	24
	제2절 일반현황	27
	제3절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32
	1. 총괄	32
	2. 기술보증	36
	3. 기술평가	42
	4. 보증연계투자	55
	5. 기업지원	57
	6. 부실발생 예방, 채무자 재기지원, 부실채권 회수	61
	7. 기타	64
	가. 인재채용	64
	나. 윤리경영, 인권경영	65
	다. 고객만족	68
	라. 리스크관리	70
	마. 정보화업무	72
	바. 사회공헌활동	74
	사. 국제교류 및 협력	77
04	부 록	80
	1. 결산 재무제표	82
	2. 상임이사/비상임이사	84
	3. 운영위원회	86
	4. 주요일지	87
	5. 영업점 현황	88

CEO'S MESSAGE

“기술금융을 선도하는 정책기관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국제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UNGC의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지지합니다.”



2017년 한 해에도 변함없이 저희 기보를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주신 중소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보는 설립 이후 약 300조원의 기술금융을 공급하여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지원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기술금융 종합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현재 정부는 사람중심의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기보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안전판의 역할을 넘어 중소벤처기업 진흥을 이끄는 역할을 올해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8년에는 신규보증 5조원을 포함하여 총 20조원 이상의 기술보증 공급을 통해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기업들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동반 성장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셜벤처 지원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입니다. 더불어 연대보증 폐지와 재기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도전적 창업 문화 확산에도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창업 진흥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젊은이들에게 진취적 기상을 불어넣는 국가적 미래 투자입니다.

유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기보에서 청년 취업에 적극 나서 청년들을 격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업 분야 개척과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2018년 기보는 첨단기술 시대의 정책금융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팩토리 보증 등 새로운 보증상품을 출시하여 지원체계를 정비하였으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평가용 AI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기보는 업무절차 혁신을 통한 신속한 지원과 기업부담 완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금융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국제수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UNGC의 인권·노동·환경·반부패에 관한 10대 원칙을 지지할 것입니다.

기보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술창업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5월

이사장 직무대행 전무이사 강봉규

INNOVATION

끊임없는 혁신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금융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습니다

01



1장 / 경제 동향

기보는 기술금융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시절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지난 29년간 국내 기술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금융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는 지금 기보는 한국형 기술금융 제도를 해외에 전파하여 기술금융의 명가로서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겠습니다.

제1절 세계경제 08

제2절 국내경제 12

제3절 향후 경제전망 15

총괄

2017년 세계경제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상승흐름을 보였으며, 이러한 성장세는 신흥국의 경기성장과 이어져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은 재정확장 정책에 따른 세제개혁 기대감으로 시장 심리가 개선되었고, 기업투자·소비 등 내수 중심의 탄탄하고 꾸준한 성장세가 지속되었다. 유로지역은 지속적 부양 정책, 제조업 경기 회복 및 고용 상승,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안정적 성장흐름을, 일본은 경기 부양 정책 및 교역 증가, 고용 개선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였다.

한편, 신흥 주요국에 대하여 살펴보면, 중국은 정부의 성장 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 및 수출증대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고, 인도는 임금 상승, 물가 안정을 통한 가계 소비 상승과 투자 재개, 러시아는 국내 금융여건 회복 및 유가 상승, 브라질은 대외여건 및 원자재 가격 개선 등을 바탕으로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WB)은 2018년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통하여 선진국은 2.2%, 신흥국은 4.5%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을 전망치

구분	2016년	2017년 ^(e)	2018년 ^(f)	2019년 ^(f)
WB 세계경제성장률(PPP) (IMF Economic Outlook)	3.2 (3.2)	3.7 (3.7)	3.7 (3.9)	3.7 (3.9)
선진국	1.6 (1.5)	2.3 (2.3)	2.2 (2.3)	1.9 (2.2)
미국	1.5 (1.5)	2.3 (2.3)	2.5 (2.7)	2.2 (2.5)
유로지역	1.8 (1.8)	2.4 (2.3)	2.1 (2.2)	1.7 (2.0)
일본	0.9 (0.9)	1.7 (1.8)	1.3 (1.2)	0.8 (0.9)
신흥국	3.7 (4.4)	4.3 (4.7)	4.5 (4.9)	4.7 (5.0)
중국	6.7 (6.7)	6.8 (6.8)	6.4 (6.6)	6.3 (6.4)
인도	7.1 (7.1)	6.7 (6.7)	7.3 (7.4)	7.5 (7.8)
러시아	△0.2 (△0.2)	1.7 (1.8)	1.7 (1.7)	1.8 (1.5)
브라질	△3.5 (△3.5)	1.0 (1.1)	2.0 (1.9)	2.3 (2.1)

주: PPP = purchasing power parity, e = estimate, f = forecast, 단위: %
자료: 세계은행(WB) 2018년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2018.01.),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8.01.)

주요
국가별
동향

미국

미국 경제는 기업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수출·민간투자가 성장을 이끄는 모습이다. 허리케인의 여파로 위축된 민간소비는 내구재 수요 증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감세안은 기업의 투자여력을 높이고, 고용·임금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확대재정정책, 투자·소비심리 개선, 양호한 고용 여건 등은 상방 리스크로 작용될 것이며, 고용증가세 및 임금상승세 둔화,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수입품에 대한 통상 압력 강화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 지역

유로지역 경제는 세계경기 상승으로 수출이 수요를 견인하는 가운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증가를 바탕으로 기업의 수익성 회복이 투자로 이어지는 상황이며, 취업자 수 증가 및 소비 확대에 이어질 전망이다. 각 국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내수부문의 성장세가 강화되면서 유로지역 경기는 상승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재정·통화정책의 추진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일본 경제는 국내 수요 확대 및 수출 증가로 완만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투자 및 민간소비 효과의 축소, 지속적인 노동부족 압력은 일본 경제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국은 투자·수출 확대, 소비심리 개선 등에 힘입은 경기 호조세, 임금 및 가계구매력 상승 등을 바탕으로 한 소비 중심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 5,000대 제조기업의 영업이익 증가(2016년 8.5%, 2017년 9월 22.8%)는 정부의 빈곤지역 소비 확대 정책과 함께 소비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부실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버블 방지 노력 등으로 부동산 경기 견인력이 약화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 역시 2017년 6.8%에서 2018년 6.4%로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타 신흥경제국

브라질, 러시아 등 주요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경제는 국내 금융여건 회복 및 유가상승에 힘입어 2017년 마이너스 성장세를 벗어났지만, 수출증가세 둔화 및 국내외 기업 투자 감소로 추가적인 경기 상승 활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경제는 대외여건 및 원자재 가격 개선을 바탕으로 한 성장세가 전망되며, 또한 물가상승률 하락에 기반한 가계 실질구매력 증대, 소비 중심의 회복세 역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적자 축소 과정에서 사회적 혼란 등 국가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인도 및 아세안 5개국은 소비 및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인도 경제는 6%대 성장률을 회복하였으며, 정책 불확실성 해소를 바탕으로 투자 재개, 임금 상승, 물가안정을 통한 가계 소비 상승 등이 전망된다. 2018년 인도 경제는 7%대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주요 신흥국 경제지표 단위: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7.10.)

구분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지수			GDP대비 경상수지			실업률		
	2016년	2017 ^(e)	2018 ^(f)	2016년	2017 ^(e)	2018 ^(f)	2016년	2017 ^(e)	2018 ^(f)	2016년	2017 ^(e)	2018 ^(f)
사우디 아라비아	1.7	0.1	1.1	3.5	△0.2	5.0	△4.3	0.6	0.4	5.6	-	-
이 란	12.5	3.5	3.8	9.0	10.5	10.1	4.1	5.1	5.9	12.5	12.4	12.4
UAE	3.0	1.3	3.4	1.8	2.1	2.9	2.4	2.1	2.1	-	-	-
러시아	△0.2	1.8	1.6	7.0	4.2	3.9	2.0	2.8	3.2	5.5	5.5	5.5
브라질	△3.6	0.7	1.5	8.7	3.7	4.0	△1.3	△1.4	△1.8	11.3	13.1	11.8
인도	7.1	6.7	7.4	4.5	3.8	4.9	△0.7	△1.4	△1.5	-	-	-

세계경제 전망

세계교역, 국제금융시장, 국제유가

2017년 세계교역량 증가율은 4.5%로, 2016년 1.5%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세계교역량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외 수요 증가 및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2018년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2017년 미국의 장기금리는 주요 경제지표 호조의 영향으로 상승하였고, 선진국과 신흥국의 주가는 글로벌 경기 개선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미국의 세제개혁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세 등으로 2018년 국제금융시장의 낙관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 중국 부채 등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유가는 상승 및 하락 요인의 공존으로 50달러 초반에서 등락이 예상되며, 감산합의의 방향 등 공급 측면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수요 증가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의 상방 압력은 경기개선에 따른 원유수요 확대, 감산합의 연장, 주요 산유국의 지정학(地政學)적 리스크 등이 있으며, 하방 압력은 미국 원유생산 증가(역대 최대생산 전망) 등이 있다.

주요 기관의 국제유가 전망

구 분	유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e)
IMF(2017.10.)	Dubai				50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11.)	Dubai	51	41	53	55
CERA(2017.12.)	Dubai				54
EIA(2018.01.)	Brent	54	45	54	60

주: () 내는 전망 일자, 단위: 달러/배럴, 자료: 기획재정부 세계경제동향(2018.01.)

주요 이슈

(1) 미국 금리 인상: 미국 연준은 2017년 고용 호조, 자산 시장 호황 등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3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법인세 인하 중심의 세제개편안 통과, 경제 성장세 유지 등에 따라 2018년에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2) 브렉시트: 영국은 EU 탈퇴금, 아일랜드 국경 문제, 상대국 거주 시민권 등에 대한 1단계 협상 및 협상 만료 이후 전환기간 및 통상 관계 정립 등 미래 관계를 다루는 2차 논의에 돌입한다.

(3) 가상화폐: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가격의 급등락으로 미성숙한 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별 규제 마련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였으며, 특히 중국은 거래소 폐쇄, 채굴업체 퇴출을 실시하는 등 전면적 규제에 나서 변동성 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총괄

2017년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따른 경기 개선 등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국내 경제성장을 이끈 반도체 산업은 전체 설비투자를 주도하며 수출 활황세를 보였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저장매체 수요 증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18년에도 세계경기 회복 및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가 늘고,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고용 개선, 복지지출 확대 등을 통해 민간소비는 호전되고 있는 반면, 설비투자는 2017년의 기저효과 및 반도체 이외 분야의 투자수요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주택경기 안정화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순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문별 경제성장률 전망

구분	2017년			2018년 ^(f)			2019년 ^(f)
	상반기	하반기 ^(e)	연간 ^(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경제성장률	2.8	3.4	3.1	3.2	2.8	3.0	2.9
민간소비	2.1	2.8	2.5	2.9	2.5	2.7	2.7
설비투자	15.9	12.8	14.3	2.1	2.9	2.5	2.3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2.6	3.4	3.0	3.3	2.6	2.9	2.7
건설투자	9.4	5.4	7.2	△0.5	0.0	△0.2	△2.0
수 출	4.2	3.0	3.6	3.0	4.2	3.6	3.5
수 입	9.3	5.3	7.3	2.2	4.1	3.2	3.1

주: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주요

부문별 동향

민간소비

2017년 민간소비는 세계경기 회복,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2018년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복지제도 확충 등 일자리 및 가계소득 증대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민간소비에 한층 더 기여할 전망이며,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이 국민소비여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한 가운데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개선이 지연되면서 생애소득 감소, 소비심리 둔화 등의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민간소비 전망

2017년			2018년 ^(f)			2019년 ^(f)
상반기	하반기 ^(e)	연간 ^(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2.1	2.8	2.5	2.9	2.5	2.7	2.7

주: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설비투자

2017년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연간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에도 대규모 설비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큰 폭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현저히 감소할 전망이다. 2017년 설비투자는 대기업과 제조업이 견인한 반면, 2018년에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비제조업 설비투자 역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전체 설비투자 증가액 중 반도체 업종의 증가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특정업종 중심의 투자확대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며, 이는 반도체 경기 둔화 시 전체 설비투자를 크게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적으로 설비투자 동향에 있어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대심리 및 투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제4차 산업혁명 투자가 미흡한 상태로 판단되어 2018년에는 관련 설비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 전망

2017년			2018년 ^(f)			2019년 ^(f)
상반기	하반기 ^(e)	연간 ^(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15.9	12.8	14.3	2.1	2.9	2.5	2.3

주: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건설투자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하던 건설투자는 2018년 본격적인 둔화·조정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기분양된 주거용 건물 위주로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건설관련 선행지표 위축, 금리 인상, 부동산 규제 정책 강화 기조 등이 신규 건설 수요를 제약할 전망이다. 또한, 지속적인 SOC투자 축소 역시 제약 요

국내경제

소로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토목은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 등으로 조정이 지속될 전망이나, 철도 및 도로 건설은 SOC 예산 효율화 등으로 투자가 줄어들며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전망

2017년			2018년 ^(f)			2019년 ^(f)
상반기	하반기 ^(e)	연간 ^(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9.4	5.4	7.2	△0.5	0.0	△0.2	△2.0

주: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지식재산 생산물투자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8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R&D투자는 주요 IT부문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율은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공공부문 R&D는 정부의 예산증가폭 축소로 둔화될 전망이나,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정부도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 소프트웨어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증가세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이지만, IT 경기 둔화라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전망

2017년			2018년 ^(f)			2019년 ^(f)
상반기	하반기 ^(e)	연간 ^(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2.6	3.4	3.0	3.3	2.6	2.9	2.7

주: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자료: 한국은행

수출입

2017년 수출은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의 통상압력,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역의 회복세, 반도체 호황 등을 바탕으로 예상 밖 호경기가 지속되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 수출에서는 반도체가 대폭적인 월별 증가율을 유지하며 호황을 견인하였고 이러한 호조는 2018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2017년 기저효과와 국제 유가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수출단가 개선효과 소멸 등에 따라 증가 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2018년 설비투자 활성화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와 민간소비 개선 등에 힘입어 소비재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향후 경제전망

03

2018년 법인세 감세로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된 미국이 세계 경제의 상승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유로 지역, 일본의 경제 성장 또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6%대 중반의 완만한 감소 성장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며, 선진국 및 주요국 수요 확대에 세계 교역이 늘어나면서 신흥경제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전망되고 있다. 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추가적인 고용 확대의 어려움, 임금 및 물가상승 압력 등의 리스크 요인들이 성장 속도를 낮추는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성장, 반도체 산업 호황 및 민간 소비 회복을 바탕으로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복지제도 확충 등은 성장을 가속시키는 요소로, 반도체 산업 중심의 불균형적 설비투자확대에 따른 리스크는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은 세계 경제의 지속 성장 전망에 따라 당분간 호황이 유지될 전망이다.

성장에 따른 지출부문별 기여도

단위: %, %p, 자료: 한국은행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e)	2018년 ^(e)
GDP	2.8	2.8	3.1	3.0
수출	0.2	0.5	0.4	1.2
내수	2.6	2.3	2.7	1.8



CHALLENGE

도전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함께 합니다

02



2장 / 중소·벤처기업 동향

2012년 이후 저성장 장기화 우려와 대외 불확실성의 지속 등으로 인한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수출호조, 물가안정 등을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금은 벤처·이노비즈·기술창업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함은 물론 기술평가보증의 지속적인 확대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발굴·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여 종합기술금융 선도기관으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1절 중소기업	18
제2절 벤처기업	19
제3절 이노비즈기업	21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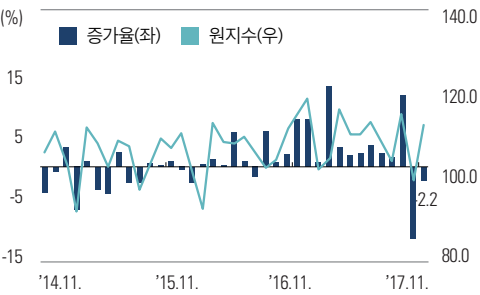
01

벤처기업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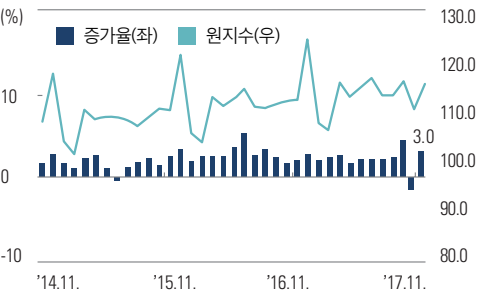
2017년 중소기업 경기는 세계경제 회복 및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서비스업) 및 수출(제조업) 여건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고용도 점차 회복되고 있어 중소기업 부문의 취업자 수는 2018년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2018년에도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및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전환 추세 등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나, 최저임금 인상 및 금리상승 기조는 중소기업 부문의 고용 및 자금 여건 회복의 제약 조건이 될 수 있다. 중소제조업의 생산은 전자부품, 기계장비 등 일부 업종에서 개선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금융보험 등의 업종에서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제조업 생산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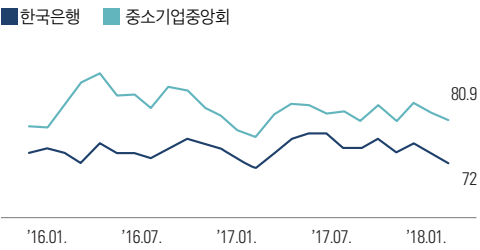
중소서비스업 생산지수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중소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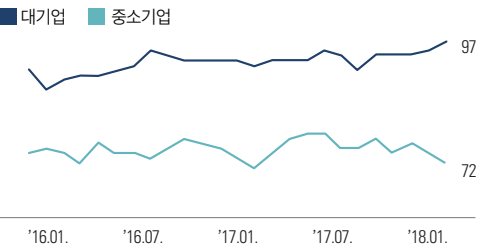
2017년 중소기업 자금사정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기조와 인건비 상승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우량 중소기업으로 대출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영세업체간 경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채산성 부진 및 미약한 수익성 등으로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자금사정 전망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기업규모별 자금사정 전망 BSI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연구원

정부는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자금, 기술, 인력, 입지 등 유·무형의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할 목적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98년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한 이후 '01년 7월 처음으로 1만 개를 돌파하였으며, '04년 4월 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과 '06년 6월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던 벤처기업 확인 기능을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민간으로 이양하는 등 전면적인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08년에는 벤처기업 수가 1만 5천 개로 증가하였다.

'10년 4월에는 재무상태가 양호한 우량 중소기업은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벤처확인을 위해서 기술평가보증을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보증금액이 아닌 기술평가보증 가능결정금액으로도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벤처기업 수가 '10년 5월 2만 개를 돌파한 이후 '17년 말에는 35,282개에 달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이은 유로존 재정위기, 선진국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수가 계속 증가한 것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하는 기술평가보증 위주의 보증지원 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능력 향상과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정책 수혜 등을 위한 인증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벤처기업 추이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업체수(개)	18,893	24,645	26,148	28,193	29,135	29,910	31,260	33,360	35,282

자료: 벤처인

벤처기업은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69.3%가 집중되어 있고, 그 외 S/W업에 16.5%가 분포되어 있다.

벤처기업의 업종별 분포

구분	제조업	정보처리, S/W	연구개발, 서비스	기타	계
업체 수(개) (구성비)	24,451 (69.3%)	5,804 (16.5%)	452 (1.3%)	4,575 (12.9%)	35,282 (100%)

자료: 벤처인, '17년 말 기준

벤처기업

또한, 지역별로는 벤처기업의 57.8%가 서울·경인지역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술력 우수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

구분	경기	서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대전 충남	경남	인천	광주 전남	기타	계
업체 수(개) (구성비)	10,653 (30.2%)	8,180 (23.2%)	3,394 (9.6%)	2,738 (7.8%)	2,609 (7.4%)	1,871 (5.3%)	1,544 (4.4%)	1,587 (4.5%)	2,706 (7.7%)	35,282 (100%)

자료: 벤처인, '17년 말 기준

벤처기업은 수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벤처천억기업 수가 '17년('16년 결산 기준) 513개로 '16년 대비 8.2%(39개사) 증가하는 등 벤처산업의 성장기반이 탄실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벤처천억기업 추이

구분 (결산년도)	'09년 ('09년)	'10년 ('09년)	'11년 ('10년)	'12년 ('11년)	'13년 ('12년)	'14년 ('13년)	'15년 ('14년)	'16년 ('15년)	'17년 ('16년)
업체 수(개)	202	242	315	381	416	454	460	474	513

'17년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벤처천억기업 513개 중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채무인수한 1개를 제외한 426개 기업에 기업에 총 2조 7,075억원의 신규보증 지원이 이루어져 이 중 349개사(81.9%)는 보증을 졸업했고, 77개사(18.1%)는 보증잔액 1,756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벤처천억기업 보증지원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보증졸업기업		보증거래기업		합계	
	업체 수	신규공급	업체 수	신규공급	업체 수	신규공급
보증현황 (구성비)	349 (81.9%)	20,133 (74.4%)	77 (18.1%)	6,942 (25.6%)	426 (100%)	27,075 (100%)

기술보증기금 보증거래기업 중 기업공개된 기업은 221개 업체로서 최초 보증 취급 당시 33개 업체, 보증거래 기간 중 133개 업체, 보증졸업 이후 55개사가 IPO에 성공하여 보증이용기간 중 성장·성숙 과정을 거쳐 IPO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기술보증기금은 국가 미래성장동력인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벤처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기술금융 지원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이노비즈기업

03

21세기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개방화 진전에 따른 국제적 기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를 견인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01년부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선정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및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이노비즈 인증 신청기업이 증가하여 '17년 말 현재 18,091개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를 거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인증을 받았다.

연도별 이노비즈기업 선정 추이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업체 수(개)	15,939	16,243	16,944	17,298	17,080	16,878	17,472	17,708	18,09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분포

구분	기계금속	전기전자	S/W	정보통신	화학	기타	계
업체 수(개) (구성비)	4,814 (26.6%)	3,370 (18.6%)	1,310 (7.2%)	1,119 (6.2%)	1,239 (6.8%)	6,239 (34.0%)	18,091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7년 말 기준

지역별 분포

구분	경기	서울	대구 경북	부산 울산	대전 충남	경남	인천	광주 전남	기타	계
업체 수(개) (구성비)	6,068 (33.5%)	3,209 (17.7%)	1,778 (9.8%)	1,251 (6.9%)	1,223 (6.8%)	1,274 (7.0%)	1,042 (5.8%)	816 (4.5%)	1,430 (7.9%)	18,091 (1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7년 말 기준

PASSION

언제 어디서나 더 뜨거운 열정으로
고객의 밝은 내일을 약속합니다

03



3장 / 기술보증기금 경영현황

기보는 탄탄한 기술 평가 인력과 시스템으로 기술 금융을 선도합니다. 기보는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기술의 진보와 융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술평가조직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를 통해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축적되지 않아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된 기술창업 중소기업 발굴에도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보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한층 넓히고 기업인들이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제1절 개요	24
제2절 일반현황	27
제3절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32

개요

01

역할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1989년 설립 이후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술중소기업에 약 323조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술금융 활성화를 선도하였으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창업기업,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형기업의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평가와 연계한 투자, 기술·경영지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술금융 종합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인 기술에 대한 미래가치 중심의 기술평가보증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술창업기업 등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보증지원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R&D 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기술의 수요·공급 매칭시스템 수립, 공공기관 유일의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주도적 참여 등의 선제적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촉진과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기보는 창업·혁신·기술기업의 중점 지원 및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보의 기술평가정보가 공공 및 민간부문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여 창조경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핵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설립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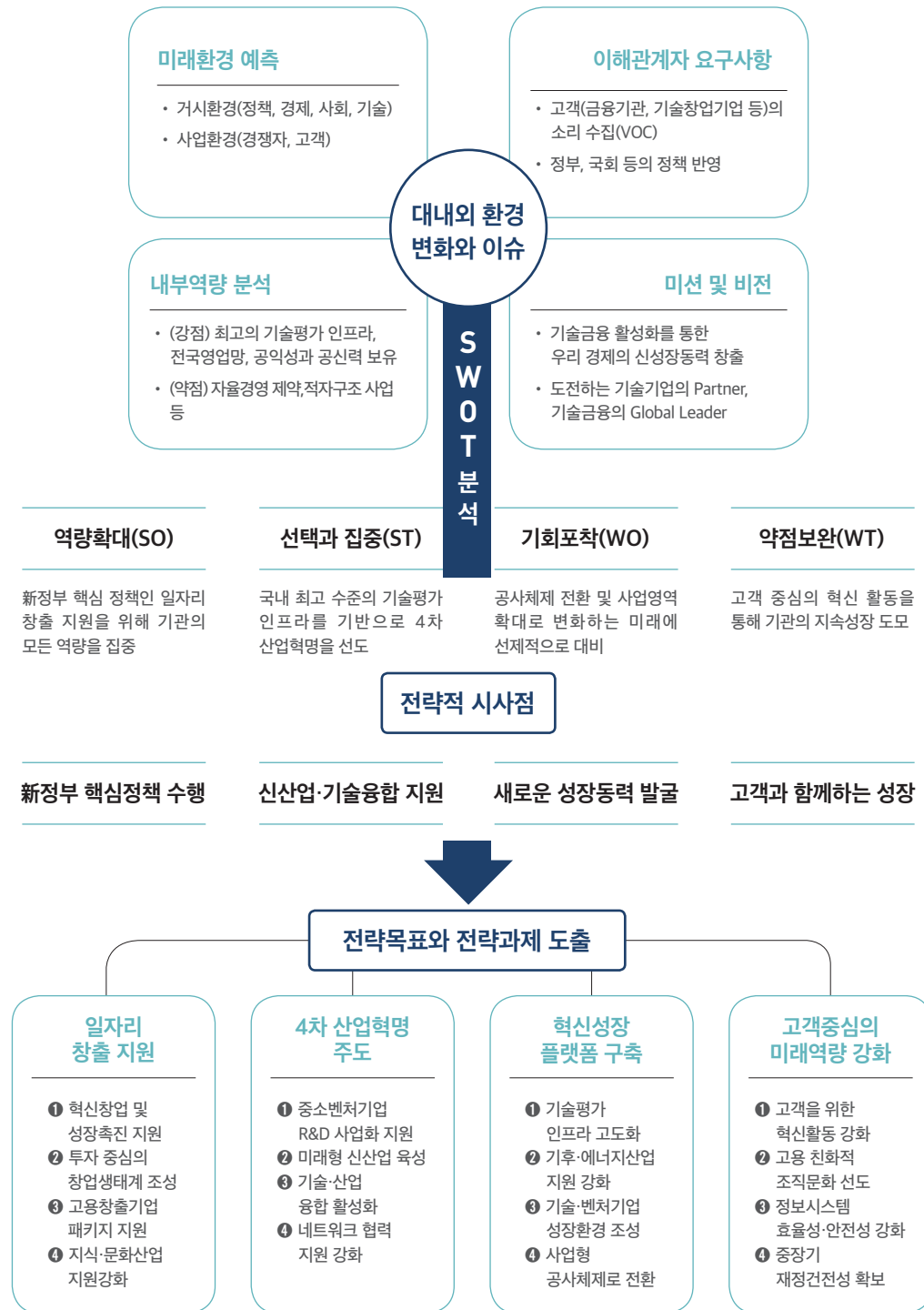
- ① 기술보증제도를 정착·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기술보증기금법 제1조>
- ②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함.<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

주요 연혁

1989. 04.	1997. 03.	1999. 02.	2005. 07.
기술보증기금 설립 (’86.12. 기금 설치)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기술평가센터 개소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	新기술평가시스템 (KTRS) 개발
2006. 06.	2007. 01.	2011. 05.	2012. 06.
벤처기업 확인기관 선정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 일원화 (재무중심 심사 폐지)	부산 문현국제금융단지 본점 입주	보증연계투자 업무 법제화
2015. 01.	2016. 09.	2017. 07.	2017. 12.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기술융합센 터, KTMS 운용)	법상명칭 변경 (기술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주무기관 변경 (금융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누적보증공급액 323조원 보증규모 21.9조원, 거래 기업수 7만 5천개 돌파

개요

비전 및 전략



일반현황

02

기본재산과 운용배수

기보는 기술보증과 기술평가를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향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기술금융 전문기관으로, 기본재산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채무보증이라는 경제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재원으로써 자본금인 동시에 대위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지불준비금의 성격이며, 정부,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술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기보에 출연('15년 400억원, '16년 800억원, '17년 508억원 전입)하는 것으로, 기술·창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기술보증이라는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이다.

금융기관 출연금은 금융기관이 기술보증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정보 및 신용도 파악에 소요되는 취급비용을 낮춰주고, 자금공급에 수반되는 위험을 없애주어 대손충당금 비용을 절감하게 됨에 따라 납부하는 보증이용의 대가적 성격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금이다. 금융기관은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연대상 용자금의 월중 평균잔액의 연율 1천분의 1.35±0.02%(차등요율),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분기중 평균잔액의 연율 1천분의 3을 출연하고 있으며, 별도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등은 특별출연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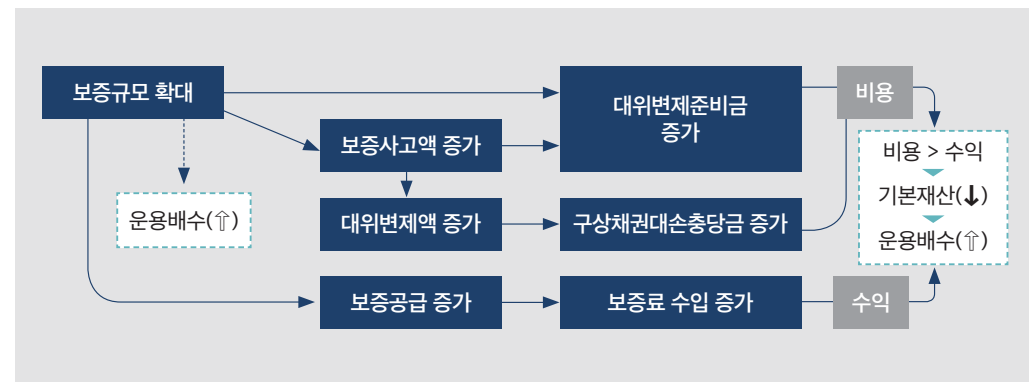
기보의 기본재산은 보증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공급 여력을 유지하고 채권자의 대위변제 청구에 대응하는 공신력 확보 등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한 재산적 기초로써, 출연에 의해 조성되는 기본재산 및 보증료, 손해금, 예치금의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된 이익금은 먼저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보의 운영상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고, 여유금은 금융회사 예치, 국제,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주식(출자증권 포함), 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기타 기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법 제44조>

2017년도는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따른 특별출연금 423억원 확보 등을 통한 수입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대보증면제 확대에 따른 구상채권회수 감소, 지속적인 이자율 감소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전년 대비 사고증가에 따른 대위변제 증가, 전년 대비 보증잔액 증가(6천억원) 등에 따른 대위변제비용(구상채권상각비, 대위변제준비비) 증가의 원인으로 기본재산은 전년말 대비 2,301억원 감소한 19,722억원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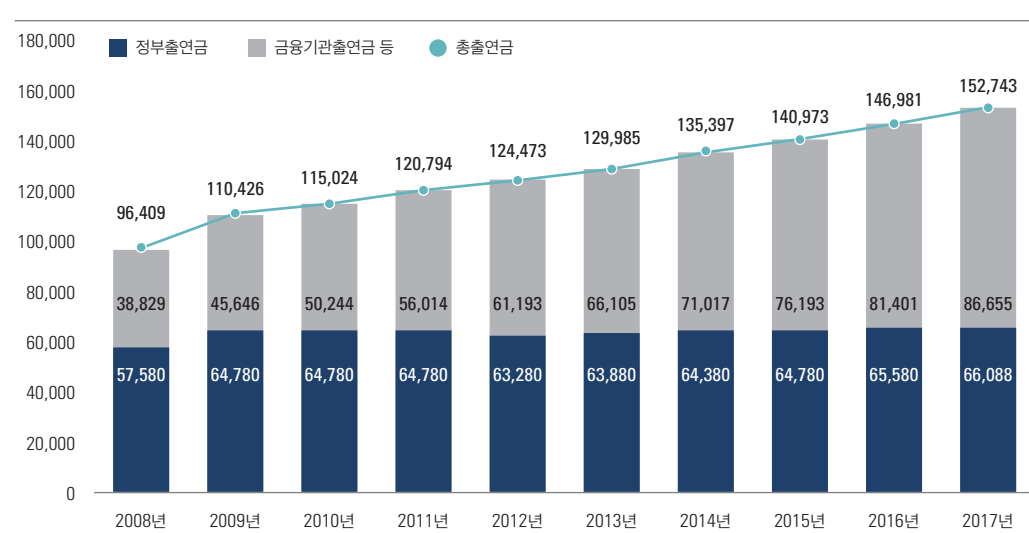
일반현황

운용배수는 일정시점에서의 기술보증규모를 기본재산으로 나누어 산출된 값(배)으로 대위변제 청구에 즉시 대응하는 지급능력과 정부정책 및 보증주요에 대처할 수 있는 보증공급여력 등을 가늠하는 지표이며, 보증규모, 사고율 및 대위변제,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금 증감 등에 따라 변동된다. 또한 운용배수는 보증제도의 최대장점인 승수효과를 반영함과 동시에 보증운용의 한도를 지정함으로써 보증기관의 건전성을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3조>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는 11.1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증규모 증가에 따른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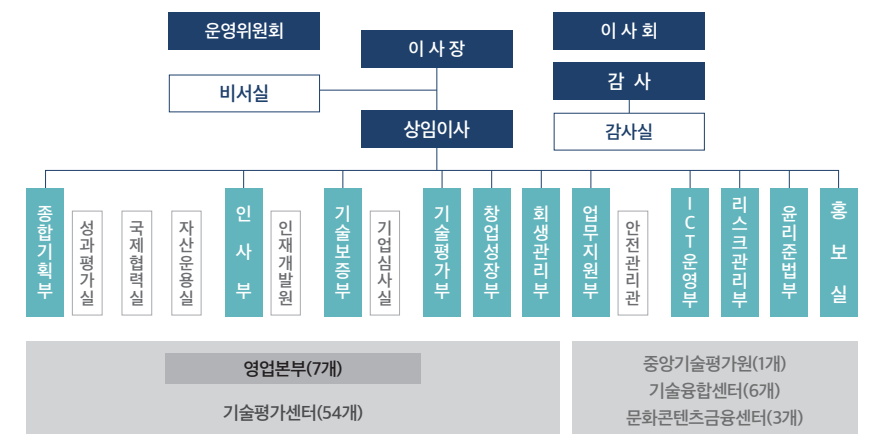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출연금 누계액 현황



조직 및 인원

본부 부서는 핵심업무에 대한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보증기획운영과 보증승인 등의 심사업무를 분리하여 수
행토록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교육관련 부수업무 관리를 일원화하였으며, 영업조직은 지식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핵심역량 확충을 위하여 서울·경기·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직 현황



2017년 말 현재 기보의 조직은 본부(10부 2실) 및 영업점(중앙기술평가원 1개, 기술융합센터 6개, 문화콘텐츠 금융센터 3개, 영업본부 7개, 지점 54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임원 7명, 별정직 119명 등을 포함하여 총 1,2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원 현황

구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이하	별정직	계
현 원	7	21	85	243	441	295	119	1,211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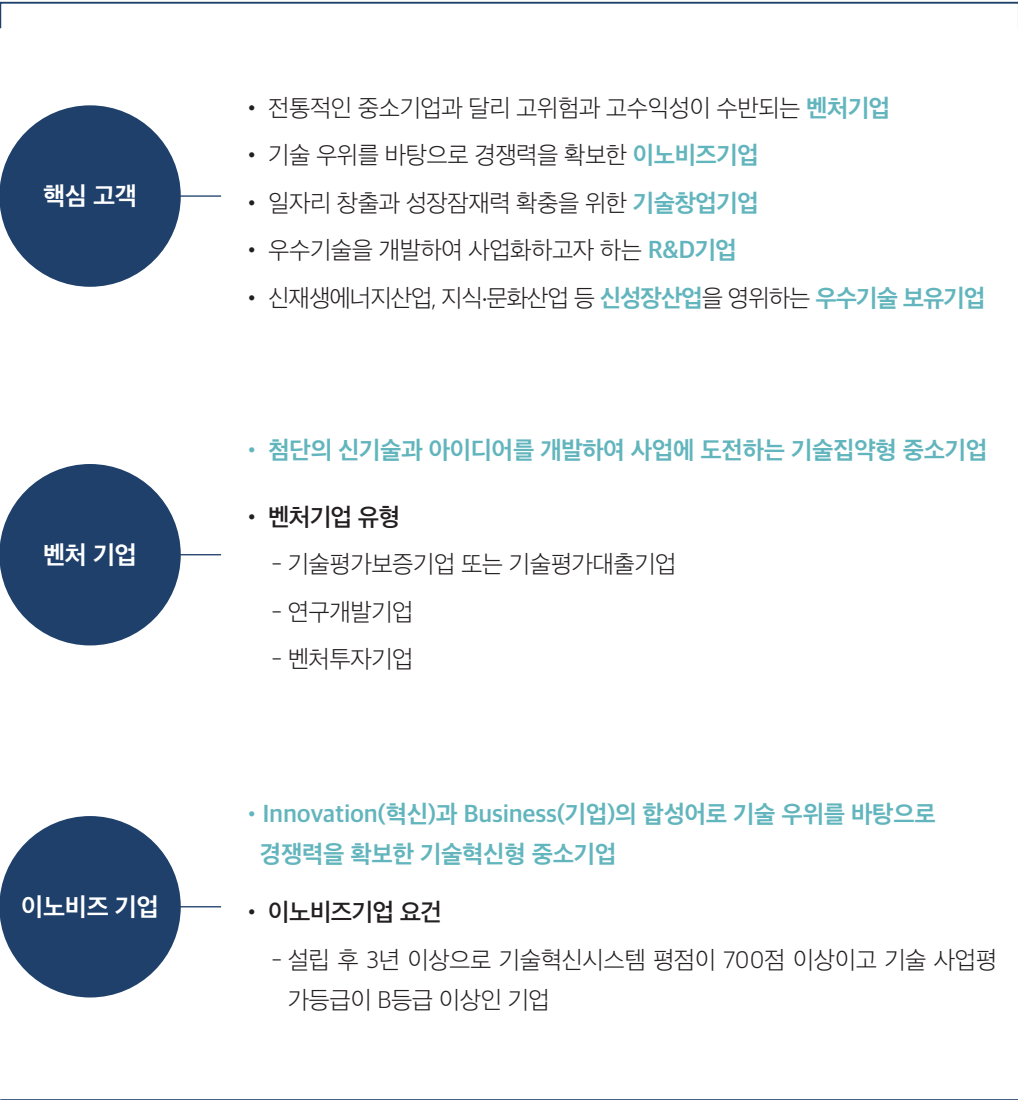
주요 업무 등

기보의 주요 업무는 핵심업무인 기술보증, 기술평가, 보증연계투자, 구상권관리 업무와 부수업무인 경영지도 및 기업지도, 기술혁신지원 업무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업무

구분		내용
핵심 업무	기술 보증	신기술사업자 등 기술중소기업이 창업, R&D 및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등의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 비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일반보증 신규지원 중단('04.8월)
		기술창업 보증 설립 후 7년 미만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기술혁신형 보증 벤처·이노비즈기업 등 우수기술보유기업, 신성장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지식기반서비스산업 영위기업 등에 대한 보증
		기술평가 보증 기업이 보유한 무형의 기술·지식 등에 대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보증
	기술 평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투·융자 등 다양한 목적의 기술금융 지원 수단으로 활용
		기술가치 평가 당해 기술에 의해 실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실현될 가치를 평가
		기술사업 타당성 평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현 기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기술성·사업타당성을 평가
		종합기술 평가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그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보증연계 투자	기술성, 사업성이 우수한 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과 연계한 직접금융 지원 - 주식인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구상권 관리	보증부실발생시점부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구상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상의 권리행사 및 관리 - 채권보전, 소송, 강제집행 등 법적절차 진행 및 임의상환 유도 등 - 채권회수 중심에서 성실한 실패의 신용회복과 재창업 지원으로 범위 확대
부수 업무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기술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경영 및 기술 컨설팅 지원 - 경영 및 기술진단, 기술자문, 창업교육, 창업강좌 및 연수, 판로개척, 멘토링제도, 기업구조조정 지원 및 M&A 등
	기술혁신 지원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 선정 녹색기술 및 녹색기업 인증

기보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기술혁신선도형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증지원하며, 특히 벤처·이노비즈기업, 기술창업기업,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우수기술 보유기업 등을 기보의 핵심고객으로 설정하여 기술금융을 우대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술창업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R&D활성화를 중점지원부문으로 설정하여 부문별 목표(Quota)를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통해 이들 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고 있다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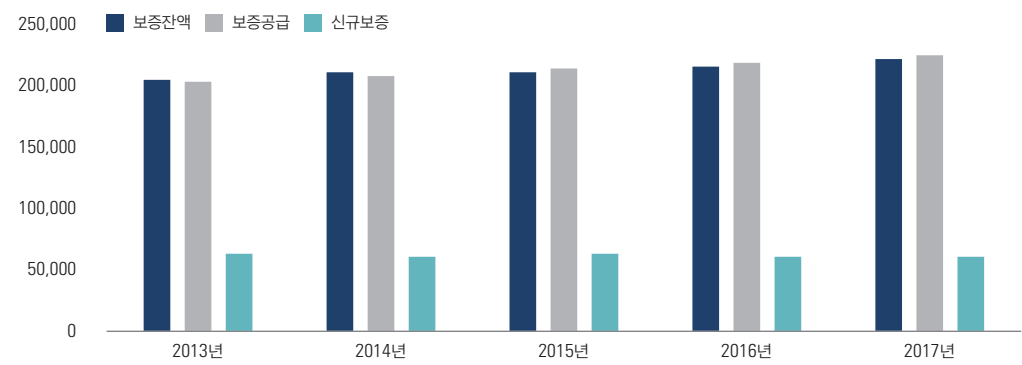
총괄

2017년 세계 경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양적 완화에 대한 출구전략 추진으로 경기 침체와 회복의 경계에 놓여 있는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경제는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저성장 기조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기보는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금융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특히, 한정된 보증재원으로 기술창업,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산업 부문을 집중 지원하였고, 기술평가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TCB 등 기술평가수요 창출 및 KSP사업의 참여를 통한 기술평가사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등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였으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상권 회수활동을 전개하여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확보하였다.

가. 기술보증

기보는 보증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보증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한계기업, 장기·고액보증기업 등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고 기술창업기업,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2017년도의 총보증 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6천억원 증가한 21.9조원을 기록하였다.

기술보증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보증잔액	197,284	201,559	207,096	212,075	218,506
보증공급	196,591	200,781	209,804	216,183	222,555
신규보증	60,184	53,489	58,046	53,098	52,859

또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술창업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R&D활성화를 3대 중점지원 분야로 지정하고 각 분야에 대한 보증공급 목표를 설정하여 집중 지원하여 기술기업의 자금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3대 중점지원 분야에 대한 보증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계획	실적
기술창업기업	103,333	104,666	90,000	107,878
신성장동력산업	70,812	66,580	60,000	69,453
R&D활성화	34,257	41,937	42,000	48,348

기술창업기업 창업 후 5년 이내인 신기술사업자
신성장동력산업 정부확정 3대 분야 17개 산업의 대표품목을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R&D활성화 R&D를 개발-사업화준비-사업화단계로 세분화하여 신청기술 및 자금에 대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나. 기술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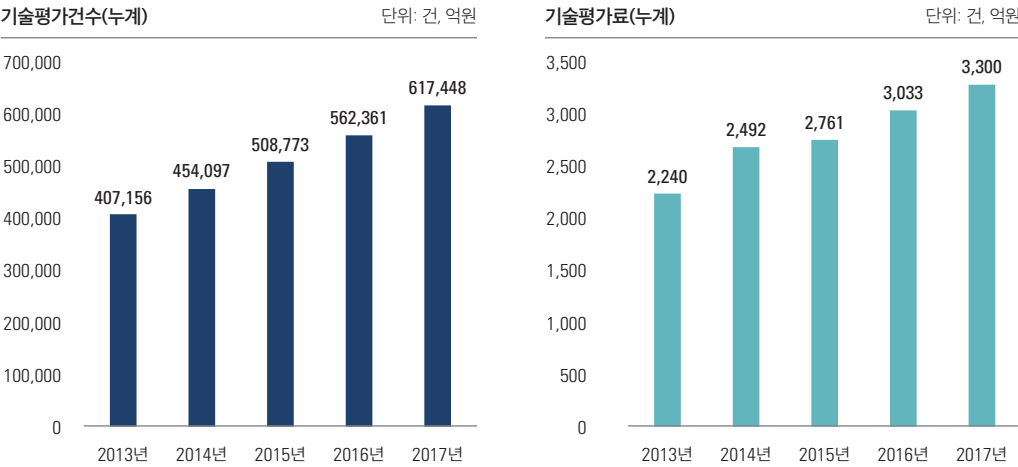
기술평가란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액·등급·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평가활동으로, 기보는 1997년 3월 최초로 기술평가를 시행한 이후 매년 평가실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까지 총 617,448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하였고, 기술평가로 누적 수입금액은 3,3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은 미래가치 중심의 자금지원,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평가, 개발기술의 사업화 타당성 평가, 무형자산의 가치 산정 등에 주로 활용되어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기보 기술평가 시스템의 활용범위

미래가치 중심의 자금지원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평가	개발기술의 사업화 타당성 평가	특허 등 무형자산 가치 산정
· 기술평가보증 · 기술기반 신용대출 · 보증연계투자 지원	· 벤처기업 확인 · 이노비즈 인증 · 녹색기술 인증	· R&D 지원 평가 · R&D 경제성 평가	· 기술이전 및 M&A · 현물출자 · 특허권 담보설정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기술평가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기술평가 건수	45,414	46,941	54,676	53,588	55,087
누계	407,156	454,097	508,773	562,361	617,448
기술평가료	242	252	269	272	266
누계	2,240	2,492	2,761	3,033	3,300

다. 사고 및 구상권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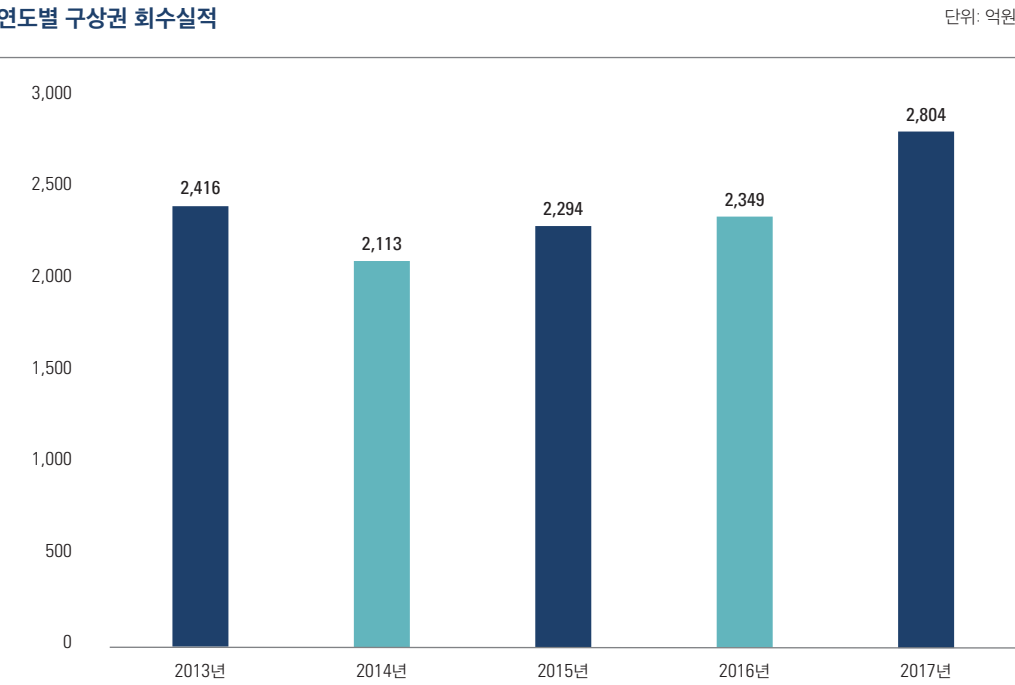
보증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사후관리와 구조개선 및 실패예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보증자산의 부실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고율은 점차 하향 안정화되어 2017년 사고율은 4.5%를 기록하였다.

사고순증금액 및 사고율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사고순증금액	7,679	7,420	8,184	8,715	9,026	7,551	8,802	8,457	9,325	9,899
사고율	6.1	4.3	4.7	5.0	5.0	4.0	4.4	4.1	4.4	4.5

* 유동화 회사보증 등 포함

정부의 「창업-회수-재도전」의 금융 혁신대책을 반영하여 실패예방과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한편, 파산신청 등 채무면책 증가, 연대보증인 축소 등으로 구상권 회수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구상권 회수자원 발굴노력 강화, 회수가능성 위주 채무자별 차별화전략 및 공공기관보유 정보활용의 정례화 등을 시행하고, 다양한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구상권 회수의 극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장기미회수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상각채권은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여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구상채권 잔액	18,594	19,076	19,719	20,762	20,938
구상권 회수	2,416	2,113	2,294	2,349	2,804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기술보증

가. 기술보증지원

총보증지원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중소기업 금융애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기술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재도약에 필요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보는 기술금융 전문 공적보증기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여 기술금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였다.

기술금융을 통해 중점지원 분야인 신성장동력산업, 기술창업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원 타당성이 높은 기업 위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7년도에 총 22조 2,555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보증규모는 21조 8,506억원으로 전년대비 6,431억원 확대되었다.

특히, 국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좋은 일자리창출에 큰 효과가 있는 일자리창출기업,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산업 영위기업, 수출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중소기업 등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여, 총 보증공급 대비 비중이 95.9%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간접시장에 편중된 중소기업 대출을 직접금융시장으로 확대한 우수기술 유동화보증 또한 2,609억원 규모로 발행하였다.

기술혁신기업 등에 대한 기술보증 지원체계 강화

기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기술혁신기업에 보증지원의 역량을 집중하여 보증규모가 증가하였다. 특히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연도별 보증지원 실적

단위: 억원, %

구분	2015년	비중	2016년	비중	2017년	비중
총보증공급	209,804	100.0	216,183	100.0	222,555	100.0
기술혁신기업	200,447	95.5	206,297	95.4	213,411	95.9
벤처기업	119,368	56.9	128,306	59.4	128,693	57.8
이노비즈기업	67,359	32.1	69,635	32.2	67,697	30.4
창업기업	86,213	41.1	85,843	39.7	88,317	39.7
기술평가보증	202,802	96.7	208,794	96.6	215,783	97.0
지식문화산업	34,190	16.3	36,304	16.8	37,192	16.7
일자리창출기업	49,876	23.8	49,886	23.1	61,655	27.7
신성장동력산업	70,812	33.8	66,580	30.8	69,453	31.2
유동화회사보증	1,169	0.6	2,562	1.2	2,609	1.2
총보증잔액	207,096	-	212,075	-	218,506	-

기술혁신기업 보증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2017년도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21조 3,411억원으로 2016년 20조 6,297억원 대비 7,114억원 증가하였고, 총보증공급 대비 지원비중도 95.9%로 기술혁신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기술창업기업 보증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창업문화 확산 등으로 국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창업기업 범위를 기존 '설립 후 5년 이내' 기업에서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 후 보증지원 강화 노력으로, 2015년에는 8조 6,213억원, 2016년에는 8조 5,843억원, 2017년에는 8조 8,317억원을 지원하는 등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신성장산업 분류체계 개편 및 지원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급격한 사업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보는 정부의 신성장산업 분류체계 구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신성장산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신성장산업 지원시스템은 9개 테마, 45개 분야로 구성된 "신성장산업 공동기준"에 기반하여 중점지원 대상을 재설정하고 지원제도를 새롭게 정립한 시스템으로서,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였다.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신성장산업 보증지원 현황

단위: 조원

구분	'15년	'16년	'17년
신성장산업 보증공급 실적	7.1	7.4	9.0
총보증공급 대비 비중(%)	34.0	34.6	40.9

나. 기술금융을 통한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

기업의 고용환경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프로그램 신규 도입

기보는 일자리 창출의 '양적 확대'와 동시에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일자리창출 기업 선정 요건을 완화하여 우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환경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업 보증지원 프로그램인 '굿잡(Good-Job) 보증' 제도를 신규 도입하였다. 굿잡 보증은 일자리 창출 기업으로서 고용 취약계층(비정규직,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을 고용하는 일자리 배려 기업('쉐어링잡')과 고용창출을 확대하는 기업('점핑잡'),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베스트잡')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우대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17년도 굿잡(Good-Job) 보증 신규보증 지원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고용배려 (쉐어링잡)	고용창출 (점핑잡)	고용유지 (베스트잡)	합계
업체 수	352	182	82	616
금액	1,060	841	482	2,383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창업보증시스템 개편 및 지원확대

미래성장 기반 조성 및 고용 없는 성장 극복을 위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기술창업기업 발굴·육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데스밸리기업(창업 후 3년~7년)의 자금난 완화 등을 위해 기술창업기업의 지원 범위를 '설립 후 5년 이내 기업'에서 '설립 후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창업기업을 업력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우대조건을 차별화 함으로써 신용도가 낮은 창업초기기업 일수록 보증료 감면을 확대하고 보증비율을 우대하여 쉽게 자금을 조달받도록 단계별 창업지원 체계를 개선하였다.

업력에 따른 창업단계별 우대지원 현황

구분	예비 창업	창업 초기		창업 중기	창업 후기
업력	창업 이전	~1년	~3년	4년~5년	6년~7년
보증비율	100%	100%	95%	95%	90%
보증료감면	△0.7%p	△0.4%p		△0.3%p	△0.3%p

이밖에 창업유형에 따라 지식문화창업, 이공계채린저창업, 기술경력뿌리창업, 첨단·성장연계창업 등 4대 창업육성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맞춤형 창업성장 보증」을 통해 8,839개 창업기업에 2조 2,143억원 신규보증 지원하였고, 소액 창업기업 위주로 기술보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기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매출액 없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창업보증 지원제도를 통해 총 12,692개 창업기업에 3조 5,046억원(전체 신규보증 5조 2,859억원의 66.3%)을 신규보증 지원하는 등 미래성장 가능성 위주의 기술 평가로 기술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창업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학·연구소 창업지원을 위한 Tech-Valley 지원시스템 강화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발한 우수기술을 사업화하여 “Made in Korea” 신화를 재현하고, 新 경제 성장동력 창출과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쏠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기보는 개방 혁신형 플랫폼인 Tech 밸리를 구축하였다. 금융기관 최초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포항공대 등 5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40여 개 창업선도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 14개와 R-Tech 밸리 구축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등 총 70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 기술인력이 활발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수 연구성과를 보유한 대학 및 연구소 내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준비, 창업, 도약 등 성장단계에 따라 금융·비금융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우수 창업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Start-Up 기업에게는 창업자금으로 최대 30억원 사전한도 부여와 실패부담 완화를 위한 연대보증 면제 지원, Take-Off 기업은 보증연계투자 우선추천, 마케팅 및 영업전략등 컨설팅 지원, Exit 기업에게는 기술특례상장을 통한 IPO 지원 및 기술이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전적 창업을 위한 창업안전망 구축

창업 활성화와 경제활력 유지를 위해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여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겸 실제경영자에 한하여 연대보증 입보하도록 하였고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등 공식적 실제경영자 1인만 입보하도록 하는 등 연대보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다. 이러한 개선 노력으로 신규보증의 평균 연대보증인 수는 계속 감소('17년 개인기업 0.05명, 법인기업 0.69명)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연대보증인 면제를 기술력이 우수(기술사업평가등급 AAA~A)한 비창업기업에도 적용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였다.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또한, 사업실패에 대한 부담감 완화 및 도전적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연대보증면제 新창업보증’을 도입하고 17개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연대보증 면제 기조를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도전적 창업문화를 확산 코자 하였다. 더불어 연대보증 면제 대상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면제 대상기업을 ‘설립 후 5년 이내’에서 ‘설립 후 7년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연대보증 면제 신규 지원금액은 17년 9,625억원으로 전년대비 1,515억원(18.7%) 증가하였으며, 연대보증 면제 기업체 수는 3,773개 기업으로 전년대비 1,017개(36.9%) 증가 하였다.

나아가 법적 변제책임 소멸·완료 채무자와 법적으로 추심이 불가능한 소각채권 채무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요소를 개선하고 구상채무 변제 완료기업에 대한 보증은 일반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등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여 창조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도모하고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신규보증의 평균 연대보증인 수

단위: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개인기업	0.09	0.06	0.05	0.06	0.05
법인기업	1.07	1.03	1.02	0.76	0.69

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산업 선제적 지원 강화

금융기관 최초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화 프로그램 도입

경기회복 지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기존 산업의 성장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산업 구조의 변화에 직면함에 따라 기보는 미래 주력산업인 新성장 분야에 대해 선제적인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인 ‘인더스트리 4.0 퍼스트 보증(FIRS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ignificant Transformation)’과 ‘4.0 스마트팩토리 보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보가 새롭게 도입한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 기술과 기업을 발굴하고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로써,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도입 현황

단위: 개, 억원

도입 제도	도입 취지	’17년 신규보증 실적	
		업체 수	금액
인더스트리 4.0 FIRST 보증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1,833	6,451
4.0 스마트팩토리 보증	스마트공장 확산을 통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84	486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지원을 위한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역량 강화

기보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우수기술기업 발굴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대외 네트워크 확보 및 원활한 보증 지원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테크노파크 등과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117개 기업에 547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원활한 자금지원 을 위해 은행 등과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필요자금 적기조달뿐만 아니라 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에도 기여하였다.

나아가 기보는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KOTRA와 기술중소기업 해외 진출 공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역량을 강화하였다.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기술평가

가. 기술평가 개요

기술평가의 개념

기술평가는 무형의 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의 미래가치 중심으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점, 의견 등으로 표시하는 제도이다.

기술평가의 범위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술의 개요국내외 기술동향기술개발환경기술수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장규모 및 특성동업계 현황시장수요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매출전망가격과 품질경쟁력사업추진의 타당성 등

기술평가의 유형

기술평가는 평가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기술가치평가, 기술사업타당성평가, 종합기술평가 등으로 구분된다.

기술평가의 종류

평가구분	정의
기술가치평가	기술에 의하여 현재 시현되고 있거나 장래에 시현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금액으로 표시
기술사업 타당성평가	기업이 특정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신규로 사업화하거나 현재 추진 중인 기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기술성 및 사업타당성을 등급으로 평가
종합기술평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을 경영환경, 사업전망 등 기업의 실체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나. 기술평가사업 운영현황

사업경과

기보는 1997년 3월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센터 및 기술평가업무를 도입한 이래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 新기술평가시스템(KTRS) 개발, 벤처·이노비즈 기업 확인(인증)기관 및 TCB 평가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최고의 기술평가기관으로 기술평가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
유엔산업개발기구 업무제휴 협약



온라인
특허자동평가시스템



기술신용평가사 시험
홈페이지

1997. 03.	기술평가센터 개소
1997. 05.	특허기술의 기술성·사업성 평가기관(발명진흥법)
1997. 10.	벤처기업의 산업재산권 현물출자가액 평가기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8. 08.	벤처기업 확인평가기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8. 11.	외국인 현물출자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기술평가기관(외국인투자촉진법)
1999. 02.	기술평가보증제도 시행
2001. 04.	기술이전 및 사업화 대상기술의 기술평가·기술거래 전문기관(기술이전촉진법)
2001. 07.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등록심사참고용 기술평가기관(한국증권업협회)
2001. 08.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기관(중소기업청)
2004. 09.	기술평가인증제도(대내용) 시행
2005. 07.	신(新) 기술평가시스템(KTRS) 개발
2007. 04.	기술평가모형 KTRS 국내 BM특허 취득
2008. 04.	기술평가모형 KTRS 국제특허(PCT)의 개별국(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록 출원
2009. 10.	창업기업용 기술평가모형(KTRS-Startup) 국내특허 취득
2010. 04.	정부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
2010. 10.	KTRS피드백 시스템 국내특허 등록(2건)
2011. 01.	KTRS 고도화 연구용역결과 적용·시행(KTRS-V2.0)
2012. 11.	녹색기술·산업 특성에 차별화된 녹색기술평가모형(GTRS) 개발
2013. 12.	KTRS계열모형 개선 및 체계 재정립(연구용역결과 적용)
2014. 06.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 지정
2014. 07.	예비창업자평가모형 개발
2015. 07.	기술가치평가 방법 및 평가 노하우에 대한 BM특허 등록(2건)
2015. 12.	투자용 기술평가모형 개발
2016. 01.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제도 민간등록 시행
2016. 08.	CTCN(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가입
2016. 10.	금융개혁추진 유공 “대통령 표창”수상
2016. 12.	IP활성화 유공 “지식재산위원장(국무총리) 표창”수상
2017. 09.	온라인 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 오픈
2017. 11.	기술평가사업 20주년 국제심포지엄 개최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기술평가 조직 및 인력

증대되는 평가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017년 말 현재 중앙기술평가원 1개, 기술융합센터 6개, 기술평가센터 54개를 설치함으로써 특화된 기술평가·금융 영업망을 확보하였다.



구분	역할	주요업무
중앙기술평가원	고도로 전문화된 핵심 평가조직	· 고난이도 전문기술평가(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 등) · 정부 및 유관기관 대상 기술평가 마케팅 · 기술평가서 검증 및 평가지원 등
기술융합센터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에 특화된 조직	· 기술거래·M&A 관련 전문기술평가(수반보증 포함) · 기술거래 수요발굴 및 중개·마케팅 업무 · 기술정보 수집 및 가공, 대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기술평가센터	정형화된 기술평가업무 수행	· 기술평가보증(지식재산보증, R&D보증 등) · 정부 R&D 경제성 평가 등 기술사업타당성 평가 · 기술신용평가, 벤처·이노비즈기업 선정 평가 등

한편, 기술평가 전반에 대한 이론과 지식을 습득하고 평가실무를 통해 일정자격과 평가역량을 갖춘 기술평가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확대하고 있다.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기금전체직원수(명)	1,066	1,085	1,102	1,126	1,156	1,211
기술평가전담인력(명)	532	578	552	592	581	605
박사급 인력(명)	134	147	154	168	190	215

*기술평가 전담인력 : 박사급인력, 전문직 직급 부여자, 본점 기술평가부서 근무자, 중앙기술평가원 근무자, 기술평가팀 소속자, 기술평가사 3급 이상 자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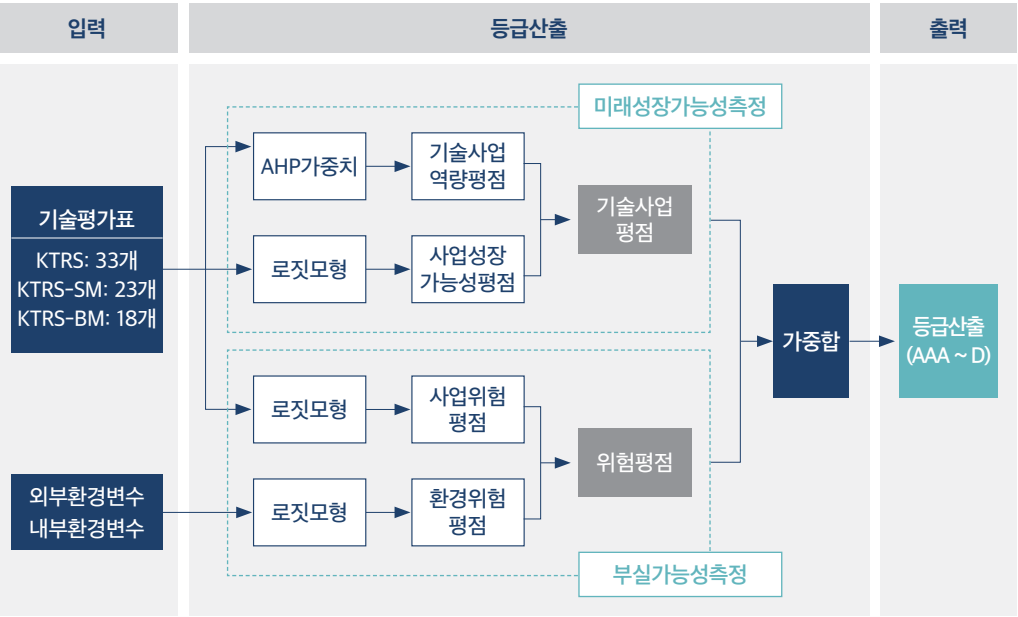
또한, 자체 보유 평가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자문위원 Pool을 구성·활용함으로써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재료·금속	화학	섬유	생명(BIO)	환경	재무회계	특허법률	문화콘텐츠	기타	계
172	128	133	88	82	13	97	36	155	51	52	67	1,074

기술평가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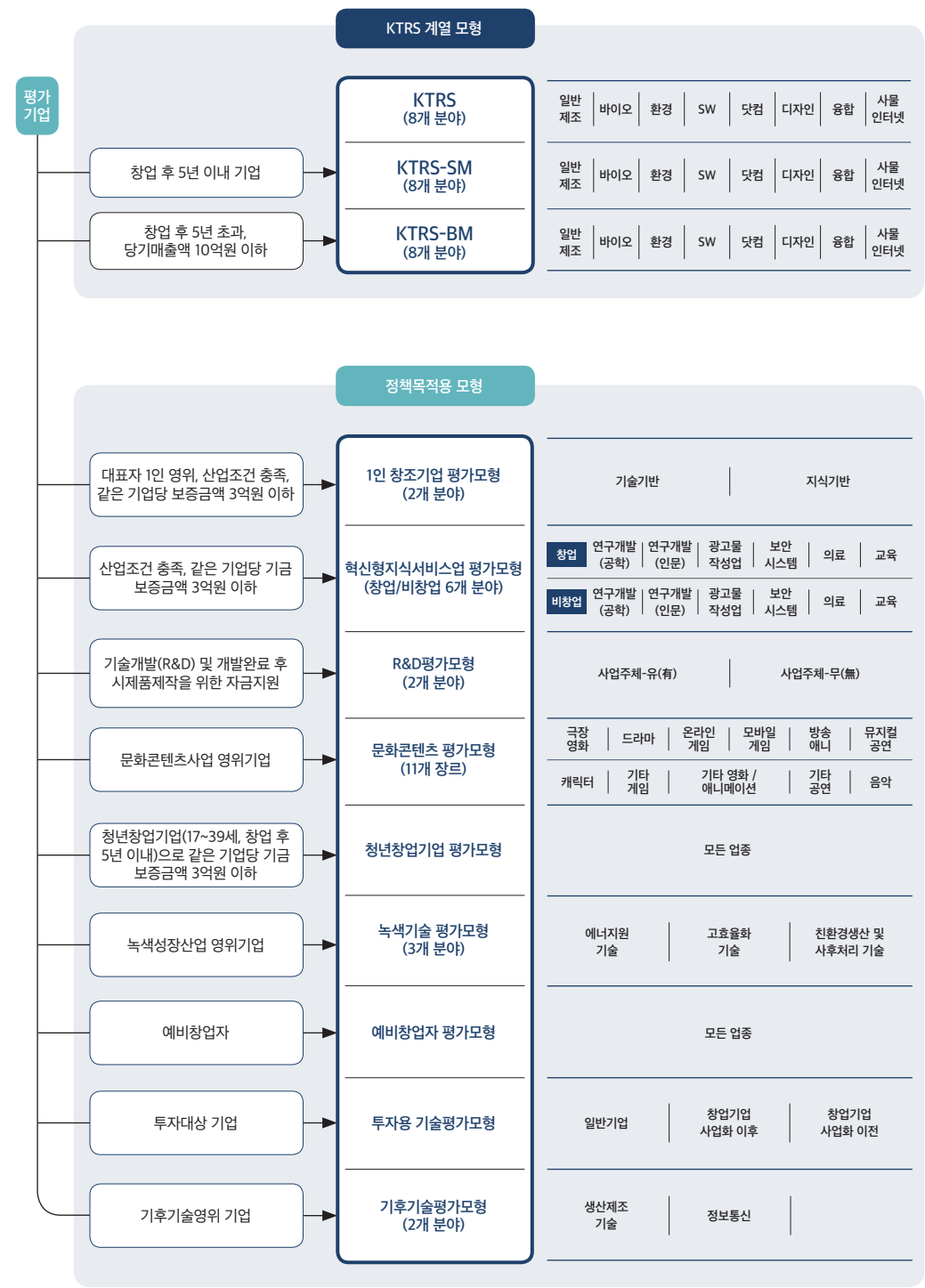
기보는 재무위주의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선별·지원이 어려운 무형의 기술·지식 등에 대하여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을 평가, 등급화하는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시스템(KTRS: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을 개발하여 운용 중에 있다.

KTRS는 기술사업의 미래 성공가능성 및 기술기반의 위험을 동시에 고려한 기술금융에 최적화된 평가시스템으로, 2005년 7월 기금 업무에 전면 도입 후 지속적인 검증과 개선으로 사고율 및 리스크 예측치가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기보는 평가목적 및 용도에 따라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술평가모형을 추가 구축함으로써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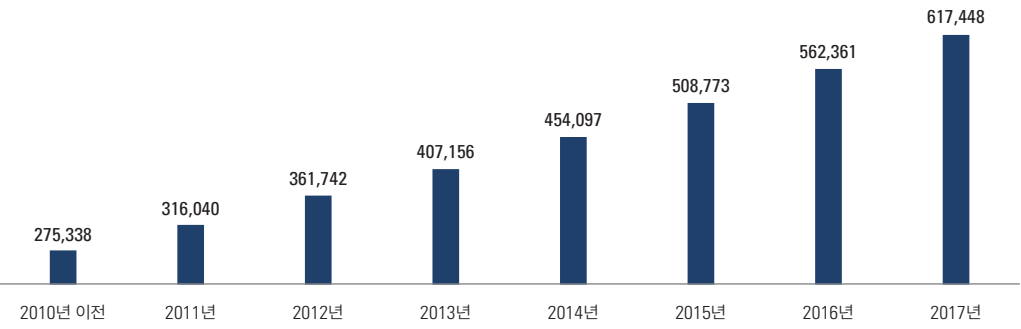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기술평가 수행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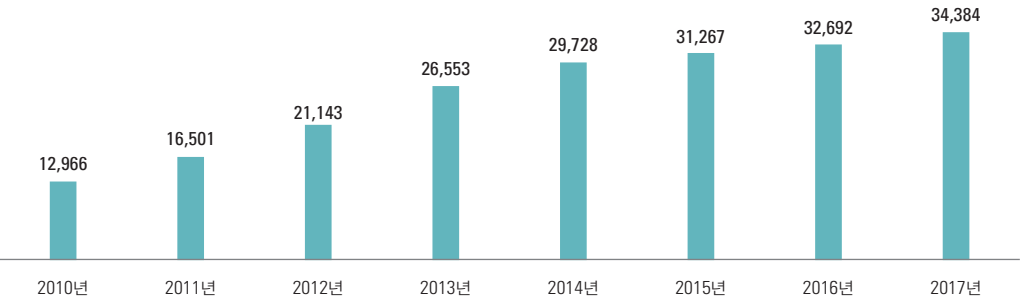
1997년 3월 기술평가업무를 개시한 이후 2017년 말까지 총 61만 여 건의 기술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국내 최고
의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도별 기술평가건수(누계)



특히, 기술평가 중 '정부 및 공공부문의 기술평가'와 '건당 평가료가 2백만원 이상인 민간부문 기술평가'는 일
반평가보다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전문기술평가로서 국내 기술평가 시장확대와
기술금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도별 전문기술평가 건수(누계)



2014년 7월부터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사업에 유일한 공공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
(TCB)으로 참여하여 은행·민간 TCB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신용평가(TCB) 관련 지원 현황

TCB 제공건수(건)			
'14년(7월~)	'15년	'16년	'17년
4,360	9,639	13,062	11,509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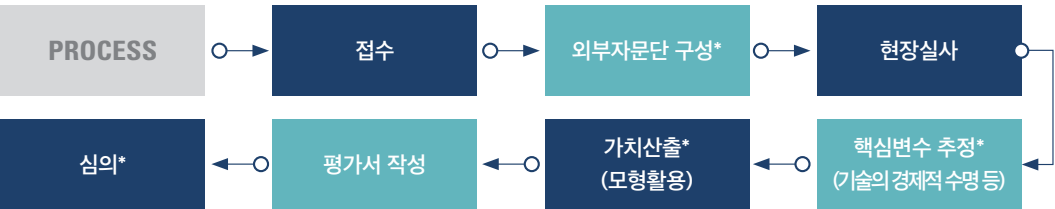
다. '17년 기술평가사업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성과

국내 지식재산(IP) 금융의 프론티어로서 역할 수행

2006년부터 지식재산(IP) 기반의 선진형 기술금융인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기술가치연계보증 등을 국내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보는 2013년 8월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식재산(IP) 보증 제도”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기술중소기업이 보유(또는 인수)한 우수 지식재산의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지원하는 차별화된 보증지원을 통해 IP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식재산(IP) 보증은 일반 기술평가보증 절차에 기술가치평가 절차가 더해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고 고도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높은 평가비용이 수반되어 지원 확대에 장애가 존재하였으나, 특허청, 시중은행,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유관기관과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수 기술기업의 금융조달비용을 절감하고, 공격적인 목표 설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 실적이 대폭 증가하였다.

기술가치평가 프로세스



* 일반 기술평가절차와는 차별화된 기술가치평가만의 심층 평가절차

특히, 2016년에는 동일한 가상공간에서 내·외부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평가협업시스템(cowork-kibo)을 도입하였으며, 기술가치 평가서의 종류를 4가지로 다양화하여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등 지식재산(IP)의 평가체계를 시장중심으로 개선하여 IP 금융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지식재산(IP) 관련 보증지원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IP보증 총지원	1,579	2,952	2,250	4,349	3,037	6,141	3,874	7,992
IP평가보증	1,313	2,602	1,794	3,811	2,323	5,278	2,884	6,681
IP인수보증	266	350	455	535	714	863	990	1,311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R&D 종합지원 강화

기보는 기술평가를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R&D를 선별하고 R&D 사업화 과정 전주기를 지원하는 「R&D보증」을 2008년부터 도입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한 R&D 자금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R&D 중주기 보증지원 제도

단계별 구분	계획 또는 개발단계	시제품 제작단계	사업화 또는 양산단계
개발 단계			
사업화 준비 단계			
사업화 단계			
대상자금	기술개발 중(R&D)에 있는 신청기술의 개발자금	개발완료 후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개발완료 후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
평가방법	사업화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사업화 타당성 분석
평가모형	R&D평가모형		KTRS / KTRS-SM

특히, 2017년도에는 R&D종합지원시스템 사상 최대인 4.8조의 R&D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R&D 보증지원 실적

단위: 건,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R&D보증 총공급	8,543	29,515	10,853	34,257	13,860	41,937	17,493	48,348
개발단계	3,601	5,987	5,023	8,103	6,835	10,651	9,171	13,794
사업화준비단계	687	1,139	731	1,210	749	1,180	820	1,214
사업화단계	4,255	22,389	5,099	24,944	6,276	30,106	7,502	33,341

또한 2016년부터는 R&D금융 지원대상을 자체개발 R&D에서 외부기술도입(개방형 R&D)까지 확대함으로써 R&D성과물(IP)의 사업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그 공로로 “지식재산위원장(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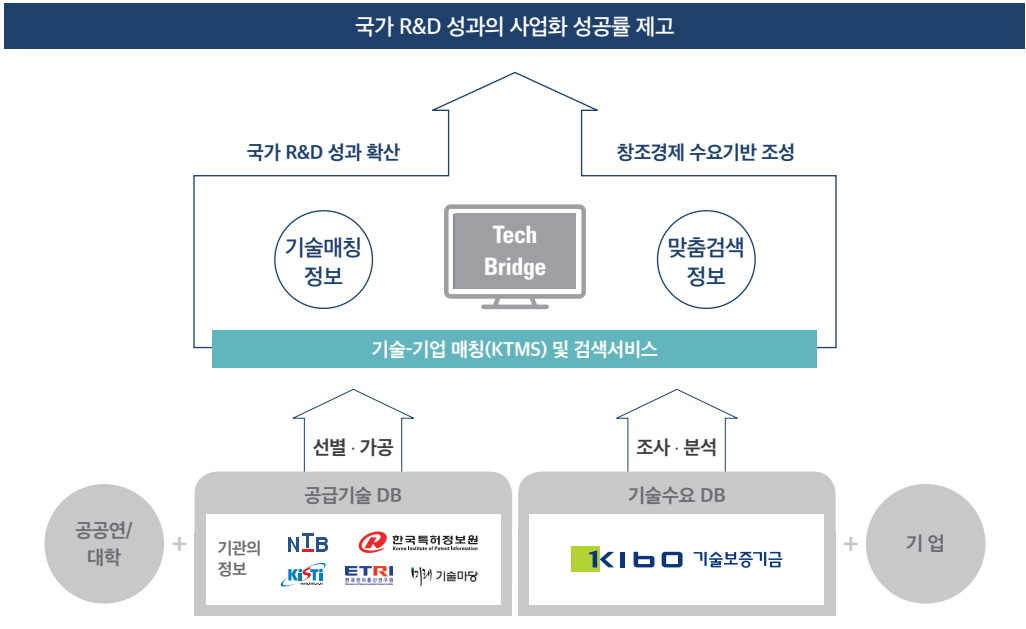
개방형 R&D지원 시스템



수요중심의 대한민국 대표 기술거래 플랫폼 정립

기보는 기술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지원, 일자리 창출 등 국가 R&D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4년 1월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업무를 시작하였으며, 2014년 9월 온라인 플랫폼인 Tech-Bridge(‘17.12월 현재 기술 수요정보DB 누적건수: 5,189건, 공급기술정보DB 누적건수: 323,741건)를 구축하였다.

기술거래 플랫폼 Tech-Bri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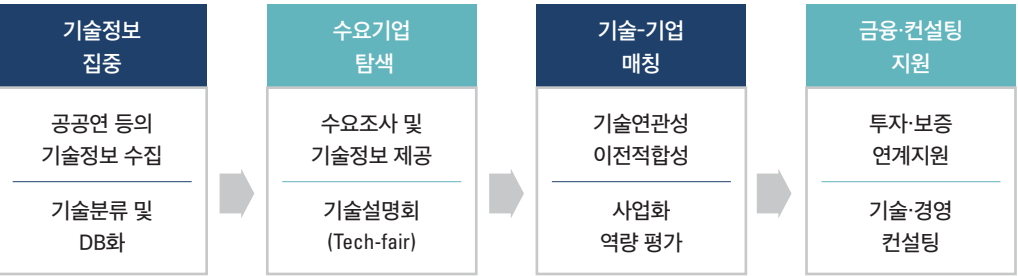


2015. 10월 KTMS(KIBO Technology Matching System) 특허등록

2016년에는 기존에 기술중심의 검색기능 외에 시장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증대와 플랫폼 활용 편의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별 검색 신설, 기술검색 고도화 및 기관별 보유(수요)기술 코너를 신설하는 등 Tech-Bridge를 공용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하였다.

특히, 금융권(‘17.12월 7개 은행)과 기술수요 발굴 협약,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정보 집중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17.12월 현재 187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프로세스의 체계화를 통해 2017년 1,490건의 기술이전 수요발굴과 528건의 기술이전 계약체결, 기술이전보증 608억원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프로세스



기술수요 발굴, 기술매칭에서 기술금융까지 One-stop 지원

기술평가시장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

기보는 기술평가 선도기관으로서 기술평가의 외연을 넓히고 신규 평가수요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형 모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거래소와의 MOU를 통해 코스닥·코넥스 기술특례상장평가를 확대·시행함으로써 상장을 위한 재무요건이 일부 미흡하더라도 기술평가를 거쳐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기술특례상장평가 제도

구분	내용					
요건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으로부터의 기술평가 결과가 BBB 이상이고, 1개는 A 이상					
평가실적 및 성과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가기업(개)	4	5	12	12	8
	상장기업(개)	1	2	3	1	2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기보는 민간 TCB, VC 등의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 대상의 선별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성장성, 투자회수 가능성 관점에서 도출한 “투자용 기술평가모형”을 개발·보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4월 투자용 기술평가인증을 시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2개 업종(서비스업, 문화콘텐츠업)에도 15개 세부 평가모형을 제공하여 민간 기술평가시장 확대를 지원하였다. 또한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평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R&D기획지원사업(중기청), 연구성과사업화지원사업(미래부),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특허청), SW기술가치평가(미래부) 등 공공부문의 IP, R&D사업화 전문기술평가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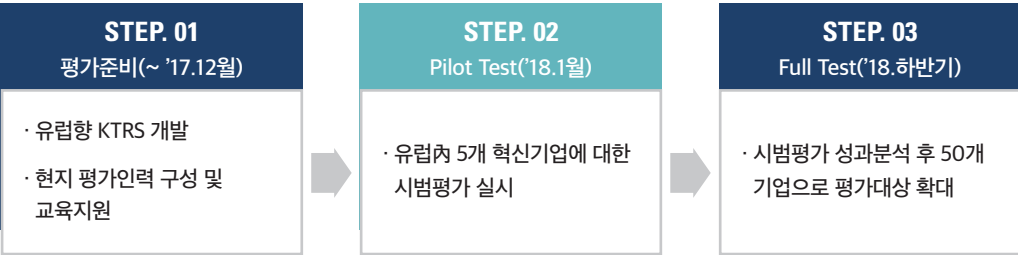
한편, 기보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금융 체계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방안으로 “기술금융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산업분야별 기술·시장의 특성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시중은행 및 VC 등의 기술금융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금융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2016년에는 기술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신용평가사” 자격검정 제도를 시행하여 2017년까지 민간 기술평가 전문인력 1,801명(1급 26명, 2급 259명, 3급 1,516명)을 배출하였으며, 기술평가의 민간 확산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기술평가 글로벌화를 통한 국제신인도 제고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

그 동안 기보는 국제 교류와 기술평가시스템(KTRS)의 해외 전수를 통해 기술평가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을 높여왔으며, 2016년에는 싱가포르 기업협회(SPF)의 요청으로 연차총회에서 KTRS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실시하는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유럽 내 KTRS 적용을 위한 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하였고,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유럽투자은행(EIB)와 업무협약 체결” 및 사업 로드맵을 확정하는 등 KTRS 국제화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KTRS 유럽적용 로드맵



EU IPF 보고서('12.11월)에서 기보 기술평가시스템을 우수사례(Good Practice)로 소개

또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보의 선진 기술금융 및 기술평가시스템을 전수하였고 그 중 태국, 베트남은 전담기관 도입 등 기보의 정책제안이 반영되어 기술평가(KTRS)의 글로벌 수요기반을 구축하였다.

기술평가 글로벌 수요기반 구축

구분	추진기관	추진내용
실무역량 지도	베트남 기술혁신원(SATI)	베트남 기술평가시스템(VTRS) 활용교육 실시('16.11월)
현지안착 지원	태국 신용보증공사(TCG)	태국 기술평가시스템(TTRS) 전수완료('17.5월)
금융제도 전파	페루 보증공사(POGAPI)	페루 보증공사와 기술평가보증제도 전수('17.7월)

한편, 기보는 거듭되는 저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글로벌 진출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중소기업은 해외시장 정보와 자금부족 등으로 해외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어, 기보의 강점인 7만여 거래기업 정보·자금지원 기능과 협업기관의 다양한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중소기업 글로벌 도약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국내거점(정보통신산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해외거점(미국, 중국, 유럽 등) 간 상호 조직·인력을 공유하는 유기적 상시 협업체계를 통해 글로벌 진출 예비기업을 발굴하고 현지화·판로개척, 글로벌 기술이전 등 다양한 진출형태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금융 선도

新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선진국에서 전 회원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6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UN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er Network)에 가입하는 등 기후기술 협력 추진방향 도출에 이어, 2017년 기후기술금융 등 기후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본격 수립하였다.

기보는 먼저 2017년 6월 기후기술평가에 적합한 기술평가모형(CTRS: Climate Technology Rating System)을 개발하고, 기후기술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7월 기후기술보증제도를 수립 및 시행하였으며, 2017년 347개 기후기술기업에 대하여 1,293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였다. 기보는 기후기술금융 연간 지원규모를 2018년 3,000억원, 2022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또한, 기보는 2017년 11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국내 기후기술 중소기업이 개발도상국 중소기업과 현지합작 등 기술사업협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수 기후기술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기보는 2017년 11월 '기술평가사업 20주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기조연설 및 토론회를 통하여 기후기술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제도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기후기술금융 추진성과



보증연계투자

가. 개요

기보는 기술·창업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05.1월부터 보증연계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증연계투자는 기술보증과 연계하여 기보가 직접 투자하는 사업으로, '12.3월 기술보증기금법 개정('12.6월 시행)으로 보증연계투자가 기보의 고유 업무로 법제화되었다. 특히 기보는 기관투자 유치 경험이 없는 창업초기·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고, 인증(또는 신호) 효과를 제공하여 민간의 후속투자를 활성화하는 마중물 역할에 충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보증·융자 등 간접금융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투자' 중심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연계투자 사업의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나. 투자종류

투자는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방식으로 한다.

다. 투자대상기업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①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창업기업
단,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R&D 및 신성장산업 영위기업은 설립 후 5년 초과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 ② 기 보증기업(또는 보증 승인기업)
- ③ 투자용 기술평가등급 TI 5등급 이상의 우수기술기업
단,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투자와 보증의 통합 한도가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술평가등급 TI 4등급 이상
- ④ 법상 벤처기업(또는 이노비즈기업)

라. 개별기업 투자한도

기업당 투자한도는 30억원, 통합한도(보증+투자)는 100억원으로 한다. 단, 투자금액은 기보가 해당기업에 보증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구분	TI 5등급	TI 4등급 이상
기업당 투자한도	10억원	30억원
기업당 통합한도(보증+투자)	50억원	100억원

투자한도: 기보 투자금액 기준
통합한도: 기보, 신보, 보증재단의 보증금액 및 투자금액 모두를 합한 금액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마. 업무프로세스

기술평가 기반으로 기업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 신용도 및 투자수익성 등 투자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PROCESS	투자발굴 상담접수 예비검토	신용조사 기술평가 (현장실사)	투자심사 (Valuation) 조건협상
	영업점 투자팀	영업점 투자팀	투자팀
투자심사 위원회	투자계약 투자실행	동향관리 IPO 지원	투자금 회수 (매각/상환)
투자팀	투자팀	투자팀 IPO지원팀	IPO지원팀 (매각위원회)

바. 운영실적

’05년 투자제도 시행 이후 ’17년 말까지 226개 기업에 2,556억원을 투자하여 22개 기업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는 등 누적투자수익률 8.0%를 시현 중에 있으며, 자세한 연도별 실적은 다음과 같다.

연도별 투자실적 및 투자수익														단위: 개, 억원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업체 수	2	10	7	8	9	8	4	2	30	35	35	36	40	226
투자 금액	5.0	85.0	81.5	90.0	90.1	95.0	55.1	35.0	431.8	366.7	405.8	384.6	430.3	2,555.9
투자 손익	-	-	29.0	2.1	19.8	5.2	21.4	41.1	22.8	△17.8	22.3	9.8	47.9	203.6

기업지원

가. 기보벤처창업교실

기술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기술창업교육을 실시하여 창업촉진 등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17년 기보벤처창업교실 수료자 현황				단위: 명
회차	1차	2차	합계	
수료자	83	60	143	

나. 청년·기술창업교실(舊 새싹기업 CEO 성공창업강좌)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술사업 영위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층의 창의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기업가 정신 함양, 기보 지원제도 소개 등 무료강좌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창업 초기기업이 사업 초기에 필요한 창업기업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조기안착을 도모하고, 수료자 간 네트워크를 통한 이업종 교류로 신사업분야 개척 및 업무파트너쉽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17년 청년·기술창업교실 수료자 현황							단위: 명
회차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합계
수료자	51	34	27	54	43	22	231

다. 도약기업 CEO 전문강좌

기보 보증을 이용 중인 창업 후 3~5년차 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우수기술기업의 CEO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기업의 성장 및 도약에 필요한 CEO 역량강화 전문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박 3일의 무료강좌로서, ’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17년 도약기업 CEO 전문강좌 수료자 현황		단위: 명
회차	'17년 1차	
수료자	238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라. 기보벤처캠프(Kibo Venture Camp)

기보벤처캠프(Kibo Venture Camp*) 도입

기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평가 인프라를 활용하여 될성부른 신생벤처를 집중 보육하고 지원함으로써 유망 스타트업을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고 좋은일 자리를 창출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Camp 의미: Competitiveness Accelerating Management Program의 약자로 '신생벤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제1기 기보벤처캠프 수행

하반기 전국단위 모집공고를 통해 총 239개 기업이 제1기 기보벤처캠프에 신청하였으며, 이중 1차 서류평가, 2차 PT평가를 통해 최종 30개 기업을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였다.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모집공고	접수	1차 선정	최종 선정
'17.8.18. ~ 9.8.	239개 기업	60개 기업(서류심사)	30개 기업(PT평가)

선정된 참여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을 위해 민간 액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금융기관 등과 MOU를 체결하여 민간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체계를 구축하였다.

민간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구분	주요 지원 내역
민간 액셀러레이터	인큐베이팅·멘토링·비즈니스 스킬 개발·시장세분화 전략 등 선진화된 액셀러레이팅 기법 제공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참여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중개
우리은행	기보벤처캠프를 위한 전용대출상품 개발, 보증료 지원 등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기보벤처캠프는 기존의 현장실사를 통한 보증 및 투자지원에서 벗어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장기간의 집중보육을 통해 스타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기보 최초의 전문컨설팅 연계 보증 및 투자지원 시스템이며, 민간 투자자금(엔젤, 민간 VC 등) 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참여기업과 투자자 간 네트워킹데이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마. 성장단계별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

창업(준비) 단계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예비창업자 사전보증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전 창업자금 지원 가능금액을 결정해주고, 창업 즉시 지원
청년창업 특례보증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경영주가 만 17~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지원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6대 분야* 해당기업 지원 * 1인창조, 녹색, 지식문화, 첨단뿌리산업, 이공계창업, 4050창업
특허창업 특례보증	창업 5년 이내 기업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기업 지원
R&D보증	R&D 쏠주기(개발, 사업화준비, 사업화)에 걸친 R&D금융 Matching을 통해 체계적인 R&D금융 지원
청년·기술창업교실	만 19세~39세 이하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미만 초기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모델, 기업가 정신 함양, 기보 지원제도 등 교육
벤처창업교실	예비 창업자에게 자금조달전략, 인사, 법무, IP관리 등 창업실무 교육

도약 단계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고부가서비스 프로젝트보증	정보통신 솔루션개발, SI서비스용역, 문화콘텐츠 제작 등의 체결에 따른 프로젝트 전 주기의 보증지원
예비스타벤처기업육성 특례보증	성장도약단계에 접어든 우수벤처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우리나라 대표기업군으로 육성
기술·산업융합보증	기술·산업융합을 진행 중이거나 융합성과를 활용·사업 중인 기업을 지원하는 보증
지식재산(IP) 금융지원	지식재산(IP)의 미래가치 및 사업화 기업의 지식재산(IP) 인수자금을 지원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일자리창출효과가 높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우대 지원 및 신규 고용(예정)인원 직접 채용 소요자금 지원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콘텐츠(영화,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방송) 제작 기업 지원
보증연계투자	보증과 연계하여 기금이 직접 투자함으로써 중소기업 재무구조개선과 직접금융 활성화
벤처·이노비즈기업 확인평가	벤처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 연구개발기업, 예비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청 소관 이노비즈 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 및 확인
기술가치평가(기술이전/거래)	기술 이전·거래 시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기술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 및 제시
기술평가인증(투/융자 참고용)	평가등급, 의견 등을 명시한 인증서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여 투·융자 등에 활용
도약기업 전문강좌	도약기업(창업 후 3~5년차 성장가능성 보유 우수기술기업) CEO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전략시뮬레이션 등 고급전문프로그램 교육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성장/성숙 단계

03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이노비즈기업 협약보증	은행과 금융지원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 우대지원 * 15개 은행: 산업, 기업, 우리, 하나,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금융기관은 특별출연을 통해 보증재원을 조성하고 기보는 부분보증 및 보증료 우대
상생협약보증	대기업 등이 추천한 협력업체에 보증지원 후 취급실적에 따라 대기업 등이 특별출연
시설자금 특례보증	시설확충 등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보증심사 등을 우대하여 시설자금 지원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	기술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수출 등 거래처 확대에 따른 원활한 수출관련 자금 지원
유동화회사보증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 인수를 통한 직접금융 조달기회 부여 및 재무구조 개선
기술이전/M&A 중개	기술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중개업무
녹색인증평가	녹색산업 지원을 위해 기술 또는 사업의 기술우수성과 녹색적합성을 확인·인증
R&D과제의 경제성·사업성 평가	추진 중인 R&D과제 또는 기술사업에 대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

위기/재도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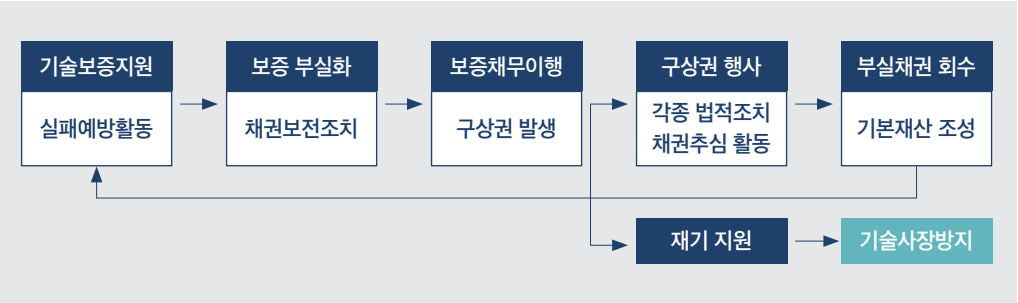
04

지원프로그램	주요내용
긴급경영안정보증	주요 거래처 조업중단 등 긴박한 자금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증지원
경영개선지원보증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보증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
유동성지원(Fast-Track)보증	금융위기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한 절차(Fast-Track)로 유동성 지원
공동위크아웃기업보증	채권은행협약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경영정상화 계획이 확정된 기업에 대하여 보증지원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실패한 중소기업이 기술과 경험의 사장을 방지하고 재창업 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재창업자금을 지원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	재기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회생지원보증과 신규보증을 함께 지원
중소기업 사전부실예방지원사업	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위기를 예방하고, 경영 전반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지원

부실발생 예방, 채무자 재기지원, 부실채권 회수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 활성화와 더불어 기보는 보증재원 확보 및 보증자산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실패 예방 및 부실채권 회수에 전사적인 노력을 전개하였다.

부실채권관리 프로세스



가. 부실발생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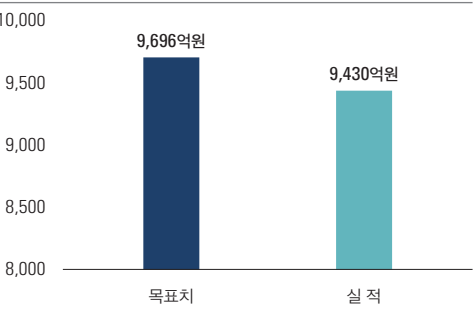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기보는 부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영업점별 보증자산의 리스크율을 산출하고 연간 사고예상금액을 리스크율에 따라 배분, 영업점 단위 목표사고율을 사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 실패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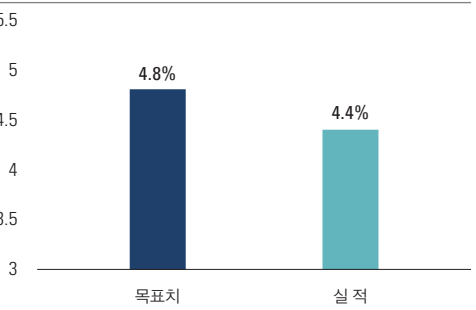
안정적인 사고율 관리

'17년도는 사드배치 갈등으로 인한 중국수출 감소, 본격적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연간 사고율을 목표치(4.8%) 범위 내인 4.4%로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다.

순사고 금액



사고율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나. 채무자 재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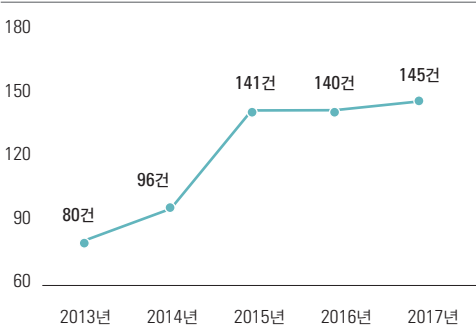
기보는 부실채권관리 패러다임을 채권회수에서 성실실패자 재기지원으로 전환하여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4월 재기보증제도를 시행한 이래 매년 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 증가하는 재기보증 수요에 대응함으로써 공적보증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또한, 자체 채무조정 및 채권소각을 실시하여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성실실패자 재기보증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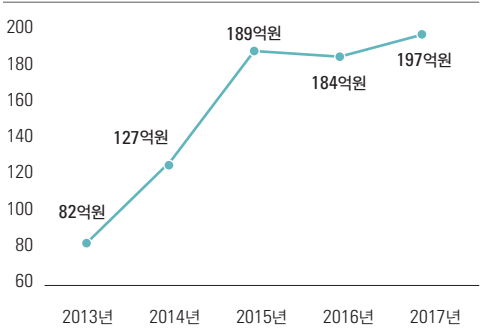
단독채무자가 재창업할 경우 기존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다중채무자는 보증료율을 인하(1.2%→1.0%)하는 등 재창업자의 채무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또한, 신복위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심사절차를 단축(2개월→1개월)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재기심사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이러한 재기보증 활성화 노력을 통해 전년대비 약 7% 증가한 197억원의 재기자금을 145개 업체에 지원하였다.

재기보증 지원업체



재기보증 금액



채무부담완화를 통한 재기 기회 확대

자체 채무조정시 분할상환 계약금 인하, 기초수급자 Fast-Track, 법적조치 해제비용 면제 등 채무자 상환의지 고취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회복된 구상채권기업 주채무자수가 752명으로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하였다.

또한, 부실발생 후 5년 경과한 소멸시효완성채권 4,310억원을 소각하였고, 이를 통해 과거 채무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됨으로써 채무자 8,202명이 신규 기술보증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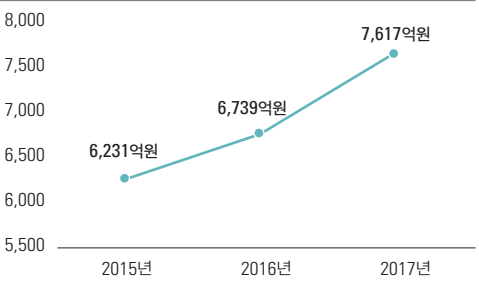
다. 부실채권 회수

창업기업 연대보증 면제로 인한 채무자수 감소, 회생절차 활성화에 따른 권리행사 제한채권 증가 등 회수환경이 크게 악화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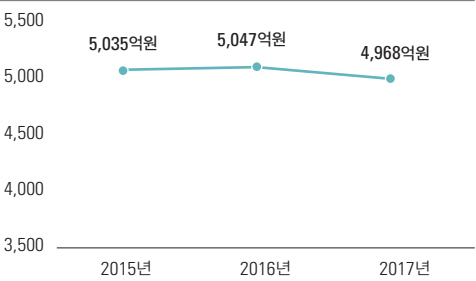
한정된 인력으로 최적의 성과를 창출하는 부실채권 관리체계 구축

채권회수를 전담하는 회생센터 직원이 크게 감소한 상황(153명→126명)에서, 부실채권을 회수가능성에 따라 “① 구상채권→② 상각채권→③ 매각채권”으로 분류하여 직원의 회수역량을 구상채권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회수가능성 낮은 구상채권은 상각하고, 회수가능성 희박한 상각채권은 매각하여 효율적 관리체계를 유지하였다.

구상채권 상각금액



특수채권 매각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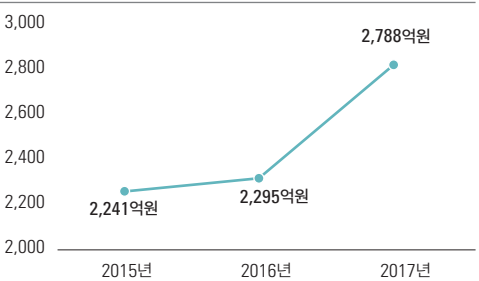


부실채권 회수실적 제고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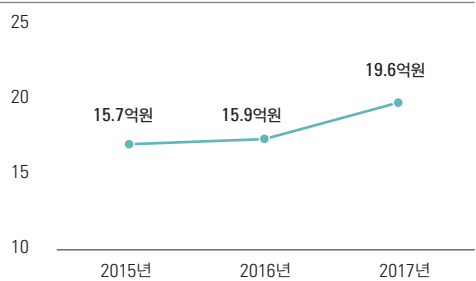
자체보유 정보를 통한 회수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법원의 채무자 공탁금정보(10,591건)를 신규 확보하는 등 전년대비 약 1.5배 증가한 64,722건의 외부 채무자 정보를 수집하였다. 회수활동 집중력 강화를 위해 “채권회수 특별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회수실적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전년대비 약 21% 증가한 2,788억 원의 부실채권을 회수하였다.

또한, 채권관리사 자격시험 개선, 맞춤형 연수프로그램, 우수회수사례 발굴대회 등 회생 센터 직원의 회수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직원 1인당 구상채권 회수액이 전년대비 23% 증가하는 등 업무효율성이 제고되었다.

부실채권 회수금액



1인당 구상채권 회수액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기타

가. 인재채용

인재채용

기보는 중장기 경영계획에 기반한 중장기 인력운영계획에 의거 종합적인 기술금융 지원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소요인력을 산출하여 신입직원 채용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의 신입직원 채용을 실시하였고 학력, 연령, 성별 등에 제한 없는 Blind 채용 방식을 도입하여 채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공정성을 제고하고 있다.

기보는 TCB, 기술이전 사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의 신규정책사업 추진을 통한 인력증원(34명) 및 자체 채용여력 확보노력을 통하여 제한된 여건 내에서도 74명의 신입직원을 채용하였다. 신입직원은 전원 청년(34세 미만)으로 채용하였으며, 취업지원대상자(6명), 지역인재 32명(35%) 등 사회형평적 채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기보는 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서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2017년 박사급 인력 10명(14%), 이공계 31명(42%)을 채용하여 타금융기관 대비 상당히 높은 비중의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채용하였다.

또한, 기보는 신입직원과 청년인턴 채용 시 여성인력 채용 쿼터(35%)를 설정하고 여성면접위원을 배치함으로써 여성지원자의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는바, 2017년 신입직원(74명) 중 28명(38%)의 여성인력을 채용하였다. 이외에도 청년인턴인력 62명을 채용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취업역량을 강화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무기계약직 채용에서는 취업지원대상자·여성·고졸을 우대하는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였다.

신입직원 신규채용 실적

단위: 명

구분	채용 인원	취업지원 대상자	청년인턴 경험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여성	이공계
신입직원	74	6	12	32	28	31

청년인턴 신규채용 실적

단위: 명

구분	채용인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여성	고졸
2017년	62	13	42	43	10
2016년	62	10	38	45	17
2015년	52	7	28	35	8
계	176	30	108	123	35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단위: 명

구분	채용인원	취업지원 대상자	여성	고졸
무기계약직	9	4	9	5

나. 윤리경영, 인권경영

● ● 윤리경영 추진현황

1. 참여와 소통의 윤리경영 실천으로 깨끗한 조직문화 확립

가. 채용비리 근절 및 불법계약 차단을 위한 윤리경영 체계 운영

신입직원 채용과정의 투명성 및 연구용역 계약업무의 공정성 강화

구분	개선내용	감사결과
신입직원 채용	BLIND(사진, 나이 등) 항목 및 외부면접위원 확대	채용비리·불법계약 “ZERO”
연구용역 계약	연구용역 업무처리기준 제정(1월), 부정청탁 차단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접근성·의명성 보장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부패사건 사전예방 및 금융부조리 근절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운영

구분	개선내용
온라인 신고센터 확대	청탁금지법 신고센터, 금융부조리신고센터 상시 운영
기보 e-감사시스템 구축	보증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 통합내부감사시스템(1월) 시행

2.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방위 대책 수립 및 개선노력

취약항목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추진

5대 핵심 신규 추진과제	개선효과
수요자 중심의 현장교육 확대	윤리의식 함양 및 고객응대역량 향상
반부패 홍보캠페인 전개	고객의 Clean Kibo 이미지 제고
청렴도 우수 5개기관 방문, 벤치마킹	모범사례 도입, 내부청렴도 1등급 달성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준법정신 고취, 위반사례 ZERO
집합연수과정에 청렴교과 편성 확대	윤리의식 내재화, 교육효과 증대

3.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탁금지법 이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렴교육 추진

구분	추진내용	추진성과
도전! 행동강령 퀴즈대회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내용으로 OX퀴즈 및 포상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ZERO"
청렴윤리 특별 순회교육	청렴강사의 청탁금지법 사례 중심 대면교육 실시	
부실점별 자체연수	본부 및 영업점 자체연수(전직원 95% 참여) 진행	

체험형·맞춤형·참여형 청렴교육 강화

구분	추진내용	추진성과
현장 체험활동	- 오리(梧里) 이원의 청백리정신 체험 연수 - 추사(秋史) 김정희 청렴문화유산 탐방 연수	올바른 공직자세 확립 - 윤리의식 함양
청렴혁신 워크숍	다산수련원 유적 탐방 및 공직자세 토의·발표	
생애주기별 교육	고위직, 승진자 및 신입직원 대상 청렴교육	
직무특성별 교육	인사·계약 등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청렴교육	

● ● 윤리경영 추진성과

- '17년 국민권익위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 4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
- 기금 임직원에 대한 국민들의 청렴성 및 신뢰도 향상

● ● 인권경영 추진현황

1. 인권교육 실시

인권의식 제고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이버연수 진행

대상자	교육내용	추진성과
기금 임직원	인권위 제작 인권의 기원 및 인권의 개념 동영상 교육	인권의식 내재화

2. 2017년도 인권경영 실천현황 점검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가점검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10개 이슈, 38개 점검항목

인권경영 현황 점검결과

- 적용 해당 31개 항목(긍정 30개, 부정 1개), 적용 미해당 7개 항목

해당 점검항목(31개)		미해당 점검항목(7개)
긍정(30개)	부정(1개)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5) · 고용상의 비차별(4)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3) · 소비자인권 보호(3) 외 15개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1)	·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1) · 강제노동의 금지(1) · 아동노동의 금지(2) · 현지 주민의 인권 보호(3)

- 부정적인 1개 항목, 즉 취약부문으로 파악된 것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인권경영이 일상적 경영활동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체제를 구축, 발전시키고자 함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다. 고객만족

● ● 고객만족 추진현황

1. 고객맞춤형 서비스 개선활동 추진을 통한 CS역량 강화

가. 고객만족경영 실현을 위한 「고객만족도 향상 추진계획」 수립·전파
’16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16년 PCSI 결과	'17년도 개선내용	추진결과
점수: 89.3점	고객중심 서비스 개선 활동 강화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달성
	고객접점 직원의 CS역량 강화	
등급: A	CS활동 상시점검 및 피드백 강화	
	고객응대서비스 절차의 간소화 제고	

나. 표준화된 고객응대서비스의 실현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업무별 고객응대지침 마련과 민원응대 대응방안 등 통합매뉴얼 제작·배포

추진실적	추진결과
고객응대서비스 표준화매뉴얼에 의거 상담 실시(연중)	고객접점 프로세스의 표준화 제고
고객내방 시 적극적인 영업점 고객맞이 안내서비스 실시(연중)	
'보증상담 시 고객응대요령'에 의한 정보제공활동 실천(연중)	

다. 고객만족을 위한 현장 CS컨설팅 및 교육 강화
고객 접점 직원에 대한 CS교육 실시를 통한 대고객 서비스 마인드 향상

구분	추진실적
영업점별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맞춤형 CS클리닉 실시(2, 8월)
영업점 자체 CS 교육	고객만족도 제고방안을 활용한 자체 교육 실시(2, 8월)
접점직원 고객응대 교육	청년인턴 및 신입직원 등에 대한 CS교육 실시(수시)
CS리더 고객응대역량 강화	영업점 CS리더를 대상으로 감성·소통 향상 연수 실시(3월)

2. 고객의견 수렴활동 및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고객서비스 개선

가. 고객 FGI(Focus Group Interview, 집단심층토의) 실시
온라인설문 고객만족도 점수 상·하위 그룹(20명 내외)을 대상으로 실시
- 고객 직접면담을 통한 서비스 이용고객의 의견수렴 및 고객 니즈 분석을 기반한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을 위한 자료로 활용

나. 고객 인식조사를 통한 고객지향적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 도출
거래고객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편·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인식수준 파악
- 고객지향적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고객 불편 제로화를 위한 세부 개선과제 14가지 도출 및 소관부서 통보

다. 고객접점 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보상 실시

추진실적	추진결과
고객만족도 최상위 직원을 'CS빅히어로'로 선정(매월)	자발적인 CS활동 참여 유도
고객만족도 최상위 영업점을 '고객감동 우수영업점'으로 선정(격월)	
고객센터 우수상담원에 대한 포상(연말)	

3. 고객만족도 대외평가 대비 노력 강화

가. 자체 전화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연중)
월 단위의 분석자료 전파를 통한 CS 부진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유발하여 피드백 강화
- 기금의 신규 보증·인증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주별 설문 실시

나. 자체 온라인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반기)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문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설문 실시하며, 이를 토대로 고객서비스 만족 지수 향상을 위한 개선대책 적극 마련
- 기금의 신규 보증·인증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반기별 설문 실시

다. 영업점장 A/S Call 및 현장방문 실시(반기)
보증·인증서비스 이용 고객 중 만족도가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점장이 직접 현장방문 또는 A/S Call을 실시하여 고객 애로·건의사항 파악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 ● 고객만족 추진성과

구분	'15년	'16년	'17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	A등급	A등급	A등급
온라인 고객만족도 조사	90.5점	94.2점	94.5점
전화 고객만족도 조사	98.7점	98.8점	99.2점

라. 리스크관리

기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조를 맞추고자 다양한 내외부 빅데이터 및 최신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리스크평가모형, 조기경보모형,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등 리스크 인프라를 재구축함으로써 부실예측능력을 강화하였다.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여건 하에서 기술금융운용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전적인 목표리스크 설정 및 합리적인 목표관리 수행과 더불어 리스크포지셔닝시스템 도입, 위기대응매뉴얼 개선 등을 통해 위기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1. 리스크관리 인프라 재구축을 통한 부실예측능력 강화

불합리한 리스크측정요소 배제 등 영업점 현장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공공데이터 등 다양한 내·외부 빅데이터와 최신통계기법을 활용하여 사고 예측력이 높은 리스크관리시스템으로 전면 리모델링하였다.

가. 리스크평가모형

장기재무정보 및 부가세정보.매출처.대출금리 등 다양한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 및 신용카드 발급 수 등 불합리한 리스크측정요소를 배제하여 사고변별력을 향상시켰다.

사고변별력 향상

구분	모형 리모델링 前(A)	모형 리모델링 後(B)	개선(B-A)
AR*	56.04%	65.05%	9.01%p ↑

*AR: 모형의 사고변별력 성능을 판단하는 지표

나. 조기경보모형

분식회계판별지표를 신설하여 분식회계기업 선별능력을 향상시켰고, 필터링 항목을 40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부실기업 조기선별력을 강화하였다.

조기선별력 개선

구분	모형 리모델링 前(A)	모형 리모델링 後(B)	개선(B-A)
민감도*	26.54%	37.70%	11.16%p ↑

* 민감도: 사후관리대상 기업그룹 중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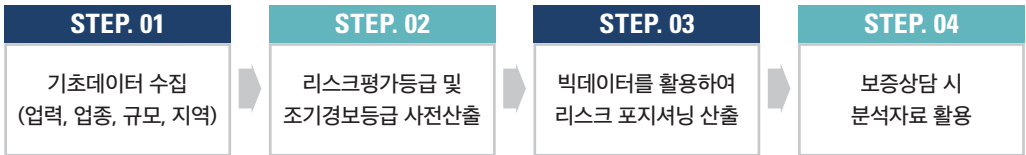
다.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부도확률.대위변제이행률 산정 시 적용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증자산 손실위험 오차비율을 개선하였으며, 총손실 추정 시 주 지표 외에 보조 지표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위험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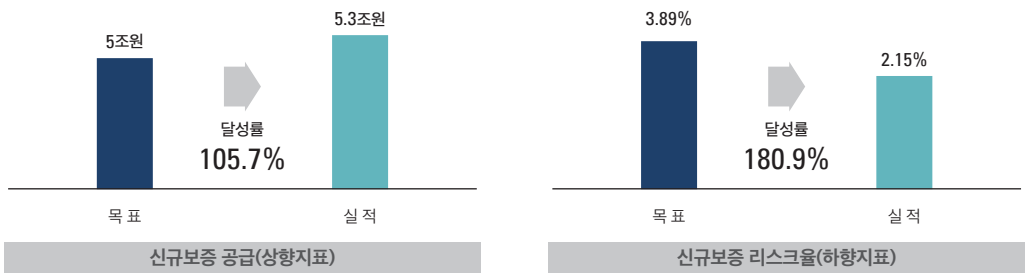
2. 기술금융운용 안정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적 보증을 중점 핵심부문으로 선정하여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리스크관리를 추진함으로써 보증목표를 효과적으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미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리스크포지셔닝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부실기업 사전경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부실최소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리스크 포지셔닝 시스템



기술금융정책과 조화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로 보증 및 리스크목표 초과 달성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마. 정보화업무

1. 시스템 처리속도 개선을 위한 ‘메인서버(슈퍼돔) 교체’

노후화된 메인서버(슈퍼돔)를 처리속도가 2배 이상 향상되고 안정성이 뛰어난 최신의 제품으로 교체함으로써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메인서버(슈퍼돔) 사양

구 분	내 용	비 고
모델명	HP 슈퍼돔2(SD2)	최신 사양의 모델
CPU	Itanium4 2.53GHz	약 2배 성능 향상
메모리	768GB	약 2.8배 증설
디스크	300GB × 98개	
운영체제	HP-UX 11.31	동일 OS 적용

메인서버(슈퍼돔) 교체 시 기존 DBMS, 솔루션과의 호환성 여부 및 데이터 이전 검증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였다.

2. 데이터베이스(DBMS) 업그레이드

제조사 서비스 지원이 종료된 기존 데이터베이스(오라클 10g)를 최신 버전(오라클 11g)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업무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을 향상시켰다.

데이터베이스 성능개선 요약표

구분	업그레이드 前	업그레이드 後	개선효율
온라인 서비스	480초	222초	54%
배치 서비스	18,820초	13,051초	31%
통계 작업	156분	73분	114%

※ 개선효율산식: (개선 전 응답속도 - 개선 후 응답속도) / 개선 후 응답속도 × 100

업그레이드 후 온라인, 배치, 통계 작업 시 업그레이드 전에 비하여 평균 66% 이상 성능이 향상되어 대고객서비스 및 직원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시스템 구축

기금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정보시스템 내 모든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기관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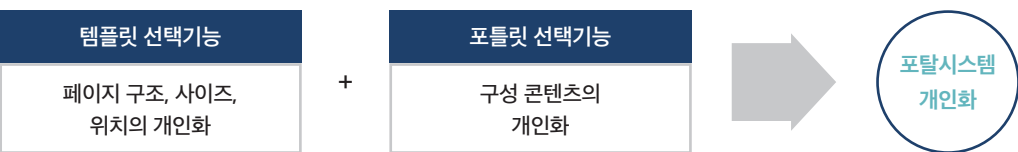
개인정보 암호화 필요성 및 구축 현황

개인정보 암호화 필요성		암호화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유출 방지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해킹·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심각	암호화 대상	주민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 300만건 서버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로그파일
		안전성	국정원 검증 필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
국가 정책 이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 조치 의무화 (‘17.12.31.까지)	성능 저하방지	서버 및 DBMS를 사전에 최신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성능 이슈 방지

4. 사용자 맞춤형 포털시스템 구축

업무 포털화면을 개인별 취향 및 선호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구축함으로써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업무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사용자 맞춤형 포털시스템 구현



5. 정보화업무 추진 성과

’17년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 및 체계적인 정보화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해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구 분	주관	기금	비 고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행정안전부	93.7(100점 만점)	공공기관 평균 80.05
정보자원관리(EA) 성숙도 측정	행정안전부	5.0(5.0 만점)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바. 사회공헌활동

1. 개요

기보는 모든 임직원이 사회책임 의식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을 지원함으로써 나눔동행을 위한 공유가치창출(CSV)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책임 경영을 통해 모범적인 금융 공기업의 모습을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사회공헌 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다.

2. 추진 전략

2017년은 기보의 설립 목적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하였고 지역사회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고자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새롭게 추진하고, 사회공헌활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선하였다.

대표브랜드	희망플랫폼 기보 		
전략 목표	CSV형 사회공헌 개발	창업인재 양성기반 마련	맞춤형·밀착형 사회공헌
'17년 중점 실행 과제	핵심역량 연계 CSV 개발	맞춤형 창업교육 강화	수혜자 맞춤형 사회공헌
추진조직	사회공헌담당부서 + 기보사랑실천추진위원회 + 기보사랑봉사단		
환류	대·내외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의견청취  사회공헌 방향성 설정 및 맞춤형 나눔활동 전개		

3. 세부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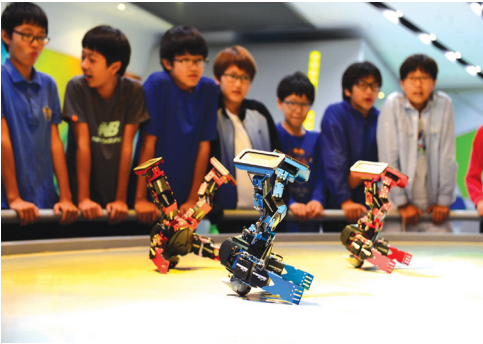
핵심역량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책임 이행

구분	내용
부산사회적기업 지원펀드 후원	· 지역경제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17.11.) · 기보 등 6개 공기업 지원펀드 50억 조성 합의 · 자금, 판매촉진, 판로 지원,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
사회적기업 우대보증 지원 활성화	·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우대보증 · 보증료감면, 보증비율 상향, 기술·경영컨설팅 우선 지원
기후환경기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술 중점지원 보증 시행('17.7.) · 기보 -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국내 기후기술기업 해외 진출 협력 업무협약 체결('17.11.)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보증」 등 시행 · 보증료 감면, 금리우대, 보증비율 상향, 성과보증료 면제
부산금융박물관로드 교육기부 활성화	· 기보, 부산시청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교육기부 프로그램 운영 · 금융·과학교육을 통하여 창의적 인재 육성에 기여
지역인재 우대채용	· 부산 문현단지 소재 6개 공공기관 합동 기업설명회 개최('17.12.) · 부산대 취업설명회 등 5회 참가



부산사회적기업 지원펀드 후원



부산금융박물관로드 교육기부

기술창업 인재양성을 위한 창업교육 지원 확대 실시

구분	내용
기보벤처창업교실	· 예비 창업자 대상 벤처·기술창업 전문 창업실무 교육
청년·기술창업교실	· 청년층에 특화된 창업기술 사업화지원 실전교육 프로그램
재기 기업인 전문강좌	· 인사노무, 특허법률, 세무회계 등 실무지식 교육 · 실패트라우마 극복, 성공CEO특강 실시
기보-우수기술기업 대학생 창업동아리 특강	· 기보-우수기술기업이 협업하여 창업동아리 대학생에 기술 체험 및 창업 교육 실시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청년·기술창업교실 실시



감만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봉사활동

수혜자 중심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실시

구분	내용
장애인 및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실시	· 장애인· 청소년에 제과제빵 직업훈련 및 진로체험 교육 실시 · 취약계층 강사를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아동 소원선물 지원	· 취약계층 아동의 소원 선물 및 자전거 조립 지원 · 신입직원 사회공헌 연수프로그램으로 등록
노·사 공동 저소득층 아동 신학기 교복지원	· 노조와 사측이 공동으로 1:1 매칭하여 새학기 교복과 학용품을 취약계층 학생에 전달
1·3세대 여가체험 ‘우리함께’ 후원	· 저소득층 노인(1세대)과 고등학교 청소년(3세대)이 함께 하는 1박2일 캠프 및 여가체험활동 지원
농촌 및 복지관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 서울경기관, 부산경남권 농촌봉사활동 실시 · 감만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기보프렌즈 4.0 창의과학교실	· 저소득층 자녀에게 과학실험 교재 제공 및 과학강사를 채용하여 창의과학 교육 실시 · 기보 공학전공 박사 인력이 지능로봇 특강



농촌 봉사활동 실시



과학창의교실 기보프렌즈 4.0 강의

사. 국제교류 및 협력

기보는 해외 선진 금융기관, 기술평가기관 등과의 폭넓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기관간 인적교류와 정보 교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보 기술금융 제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다.

기보는 KTRS의 글로벌 브랜드 제고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평가시스템의 해외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와의 업무협약 및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과의 MOU 체결 등을 통해 KTRS Pilot Test 등과 같은 혁신중소기업 지원 및 평가관련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보는 기술금융 제도의 글로벌화 추진과 더불어 해외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해외기관과의 교류와 함께 정부 KSP(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베트남과 페루에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 등을 전수하고 기술금융 역량강화에 조력하고 있다. 또한, WIPO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통해 기후기술정보 공유, 공동 기술이전사업, 개도국 대상 기후기술금융 시스템의 전파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이전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기보가 각고의 노력으로 구축해온 기술금융, 기술평가시스템에 대해 해외기관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기관들이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기보를 방문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보는 보다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기보의 기술금융이 세계 각지에서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인정받고 기보가 ‘기술금융의 Global Leader’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주요업무별 경영성과

1. 주요성과



유럽투자은행-유엔산업개발기구 업무제휴 협약



제30차 ACSIC Conference 참가



2017년 유럽집행위원회(EC) 회의 참가



WIPO Innovate 4 Water Forum 참가



제27차 ACSIC Training Program 참가



싱가포르 공무원교육연수원 기금 연수 방문

2. 국제 교류 현황

기금을 방문한 해외 유관기관

시기	기관명	교류 내용
3월	자메이카 재정기획부, 국영물관리위원회, 미주개발은행	기금의 기술금융제도 및 경영평가 현황 소개
6월	베트남 중앙은행, 재무부, NATIF	기금 및 기술보증-금융제도 소개
6월	페루보증공사	기금 및 기술보증-금융제도 소개
8월	태국신용보증공사	기금 및 기술보증-금융제도 소개
11월	태국 과학기술부 장관 외	태국기술평가모형 실제 운영방안 논의
11월	싱가포르 공무원교육연수원	기금의 기술혁신, 창업, R&D 등 업무 소개
12월	유럽투자은행(EIB)	KTRS Pilot Test 일정 및 방안 논의
12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기술평가모형개발 적용 방안 논의

기금의 국제회의의 참가 외

시기	회의명	교류 내용
4월	인도네시아 금융협력포럼	기금 업무 및 기술평가시스템 소개
5월	제50차 ADB 연차총회	기금 업무 소개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5월	2017년 AECM 총회	유럽 및 세계 보증기관과의 업무 교류
6월	WIPO Innovate 4 Water Forum	기금 업무 소개 및 물 분야 기술이전 추진
7월	2017 세계감사인대회	기금 업무 소개 및 감사제도 발전 도모
7월	몽골 금융협력포럼	기금 혁신창업기업 지원방안 소개
9월	제27차 ACSIC ATP	각 국가/기관별 신용보증제도 정보교환 등
9월	UN ESCAP-해외금융협력협의회 포럼	기금 및 기술금융 소개 및 네트워크 구축
11월	제30차 ACSIC 회의	각 국가/기관별 신용보증제도 정보교환 등

APPENDIX

04



1. 결산 재무제표	82
2. 상임이사/비상임이사	84
3. 운영위원회	86
4. 주요일지	87
5. 영업점 현황	88

결산 재무제표

'17년 요약
재정상태표

2017.12.31. 현재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 및 순자산	
과목	금액	과목	금액
I. 유동자산	2,303,584	I. 유동부채	167,922
현금 및 현금성자산	13,666	선수수익	151,562
단기금융상품	1,281,961	기타	16,360
단기투자증권	747,921	II. 장기충당부채	1,005,032
기타유동자산 등	260,036	대위변제준비금	912,020
II. 투자자산	289,550	유동화보증대위변제준비금	64,016
장기금융상품	71,000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28,996
장기투자증권	215,309	III. 기타비유동부채	595
기타투자자산 등	3,241	부채총계	1,173,549
III. 일반유형자산	141,253		
토지	47,125	I. 기본 순자산	10,360,891
건물	87,566	설립 시 기본재산	21,768
기계장치	2,697	출연금	10,339,123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	3,865	II. 적립금 및 잉여금	(8,401,050)
IV. 무형자산	2,674	전기이월잉여금	(8,240,981)
산업재산권 등	2,674	기타순자산의 증감	50,800
V. 기타비유동자산	408,697	당기재정운영결과	(210,869)
구상채권	345,032	III. 순자산조정	12,368
보전채권	221	투자자산평가손익 등	12,368
보증금 등	63,444	순 자산 총 계	1,972,209
자산총계	3,145,758	부채와 순자산 합계	3,145,758

'17년 요약
재정운영표

2017.1.1. ~ 2017.12.31. 단위: 백만원

과목	금액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1,066,998	(292,850)	774,148
산업금융지원	1,066,998	(292,850)	774,148
II. 관리운영비			49,151
인건비			24,081
경비 등			25,070
III. 비배분비용			38,257
자산감액손실 등			38,257
IV. 비배분수익			125,247
이자수익 등			125,247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736,309
VI. 비교환수익 등			525,440
부담금수익			483,180
기타재원조달 및 이전			42,260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210,869

'17년 요약
순자산변동표

2017.1.1. ~ 2017.12.31. 단위: 백만원

과목	금액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I. 기초순자산	10,360,891	(8,240,981)	82,427	2,202,337
보고금액	10,360,891	(8,240,981)	82,427	2,202,337
II. 재정운영결과	-	210,869	-	210,869
III. 조정항목	-	50,800	(70,059)	(19,259)
투자증권평가손익	-	-	(71,357)	(71,357)
자산재평가이익	-	-	1,298	1,298
기타순자산의 증감	-	50,800	-	50,800
IV. 기말순자산(I - II + III)	10,360,891	(8,401,050)	12,368	1,972,209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EXECUTIVE DIRECTOR

강낙규
전무이사



박기표
이사



곽영철
이사



상임이사 EXECUTIVE DIRECTOR

황대현
이사



유기현
이사



최성수
감사



비상임이사 NON - EXECUTIVE DIRECTOR



김만두
비상임이사



이종우
비상임이사



배병일
비상임이사



이기우
비상임이사

비상임이사 NON - EXECUTIVE DIRECTOR



김태영
비상임이사



이대식
비상임이사



이지언
비상임이사



운영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운영위원
명단

(2017.12월) *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술보증기금법 제17조

구분		운영위원			비고
위 원 장		기 술 보 증 기 금 이 사 장			
지명 위원 (5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명(1명)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이재홍	
	기획재정부장관 지명(1명)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안도걸	
	금융위원회 지명(1명)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김태현	
	중소기업은행장 지명(1명)	중소기업은행	부 행 장	황영석	
	국민은행장 지명(1명)	국민은행	전 무	김남일	
위촉 위원 (7명)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집행 간부 중에서 중소기업부장 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3명)	신한은행	부 행 장	최병화	
		우리은행	상 무	이동연	
		하나은행	부 행 장	정정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촉(1명)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준동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촉(1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공석
	기술관련 전문가 중에서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2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 회 장	김이환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원 장	조용범	

주요일지

일자	주요내용
1월 16일	제12대 김규옥 이사장 취임
2월 10일	2017년 제1차 경영전략워크숍 개최(인재개발원)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우리은행과 스마트공장 금융지원 협약 체결
4 월 1 일	창립 28주년 기념 산행(속리산)
4 월 4 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모델 개발 경진대회’ 개최
4 월 5 일	2017년 제1회 청년·기술 창업교실 개최(서울)
5월 15일	2017년 제1회 벤처창업교실 개최(서울)
5월 20일	2017년 제1회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시험(1급, 3급) 실시
6월 14일	기보-조달청, 벤처·창업기업 판로지원 업무협약 체결
6월 22일	2017년 제2회 청년·기술 창업교실 개최(제주)
6월 22일	기보-코트라, 우수기술기업 해외진출 공동지원 업무협약 체결
7월 19일	2017년 제1회 부산벤처스쿨 개최
7월 27일	2017년 제2차 경영전략워크숍 개최(부산 본점)
8월 17일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개점 행사
8월 29일	기보-한전전력연구원, 코엑스에서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9월 12일	기보-KAIST,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이전 설명회 개최
9월 18일	기보-한전, 4차 산업혁명 및 에너지신산업 성장추진 업무협약 체결
9월 20일	기보-부울·경테크노파크,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 창출 공동지원 업무협약 체결
9월 22일	기보-문화체육관광부-기업은행, 콘텐츠 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 체결
9월 22일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재인증 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9월 25일	기보-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KEB하나은행,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11월 2일	기보-유엔산업개발기구, 기후기술기업 글로벌 진출 협력
11월 2일	‘기술평가사업 20주년 국제심포지엄’ 개최
11월 3일	열린혁신추진위원회 출범
12월 8일	기보-LH,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2월 27일	문현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합동 기업설명회 개최
12월 28일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개최

영업점 현황

구분	주소	대표전화
경기영업본부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19, 국민연금 수원사옥 6층	031)8006-1500
서울영업본부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41층	02)3215-5900
부산영업본부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7층	051)606-7433
인천영업본부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323, 송도센트로드 B동 10층	032)830-5600
충청영업본부	대전 서구 둔산대로 141, 2층	042)610-2231
호남영업본부	광주 서구 죽봉대로 80, 무등산타워 6층	062)360-4662
대구영업본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053)251-5600
중앙기술평가원	서울 서초구 매향로 16, 하이브랜드빌딩(리빙관-11층)	02)2155-3753
가산기술평가센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에스티엑스브이타워 1906호	02)818-4300
강남기술평가센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8, 동우빌딩 5층	02)2016-1300
강릉기술평가센터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8층	033)640-8700
경산기술평가센터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053)859-9000
광주기술평가센터	광주 서구 죽봉대로 80, 무등산타워 6층	062)360-4600
광주서기술평가센터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40, 기업은행 3층	062)941-6833
구로기술평가센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05, JNK디지털타워 1801호~1807호	02)6124-6400
구미기술평가센터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24, 기업은행 3층	054)440-0730
김포기술평가센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13, 신한프라자 805호	031)980-8600
김해기술평가센터	경남 김해시 내외중앙로 55, 기업은행 4층	055)330-2100
녹산기술평가센터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20, KEB하나은행 3층	051)832-0460
대구기술평가센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8, S큐브빌딩 10층	053)251-5600
대구북기술평가센터	대구 북구 원대로 130, 화성빌딩 5층	053)356-0421
대구서기술평가센터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12층	053)550-1400
대전기술평가센터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기보빌딩 1층	042)610-2200
대전동기술평가센터	대전 중구 대종로 540, 유안타증권 2층	042)250-0700
동래기술평가센터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25, 금정타워 10층	051)510-6900
마산기술평가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23, 기업은행 2층	055)249-9799
목포기술평가센터	전남 목포시 옥암로 25, 기업은행 2층	061)288-1500
부산기술평가센터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보빌딩 3층	051)606-7674

구분	주소	대표전화
부천기술평가센터	경기 부천시 소항로 217, NH농협은행 4층	032)620-8800
부평기술평가센터	인천 부평구 부흥로 353, 중소기업은행 2층	032)509-1700
사상기술평가센터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71, 하나은행 2층	051)320-3400
사하기술평가센터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336, 시우스빌딩 3층	051)250-7808
서울기술평가센터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41층	02)3215-5900
서초기술평가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181, 단우빌딩 4층	02)3476-7265
성남기술평가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884-3, 가온미디어 6층	031)750-4800
송파기술평가센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아이티벤처타워 동관 601호	02)3400-7900
수원기술평가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19, 국민연금공단 6층	031)8006-1500
순천기술평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52, 청우2빌딩 6층	061)729-9333
시화기술평가센터	경기 시흥시 옥곡공원로 361, KT&G 안산지사 3층	031)496-5911
아산기술평가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5, 장호빌딩 3층	041)538-5900
안산기술평가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66, 교보빌딩 9층	031)8084-5300
안양기술평가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82, 건강보험빌딩 2층	031)450-1600
양산기술평가센터	경남 양산시 중앙로 216, 기업은행 3층	055)387-6571
용인기술평가센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49, 2층	031)8020-4000
울산기술평가센터	울산 북구 산업로 9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052)220-7900
원주기술평가센터	강원 원주시 원일로 115, NH농협은행 3층	033)730-8300
의정부기술평가센터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44, 석천빌딩 4층	031)820-0300
익산기술평가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7층	063)840-3100
인천기술평가센터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23, 송도센트로드 B동 10층	032)830-5600
인천중앙기술평가센터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30, 기보빌딩 1층	032)420-3500
일산기술평가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엠시티타워 15층	031)931-7200
전주기술평가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 11층	063)270-9800
종로기술평가센터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대우빌딩 복합동 2층	02)2280-4800
진주기술평가센터	경남 진주시 대신로 310, 기업은행 4층	055)750-1111
창원기술평가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38, 기업은행 3층	055)210-4099
천안기술평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지원센터 802호	041)629-5913

영업점 현황

구분	주소	대표전화
청주기술평가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6, 산남동인템프라자 6층	043)290-9513
춘천기술평가센터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5층	033)240-2800
충주기술평가센터	충북 충주시 애향로 10, 현대자동차 3층	043)842-1591
평택기술평가센터	경기 평택시 평택1로 48, 비전프라자 3층	031)659-8700
포항기술평가센터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69, 기업은행 3층	054)271-4900
화성기술평가센터	경기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934-4, 우리들유통타운 C동 207호	031)299-8200
광주기술융합센터	광주시 서구 죽봉대로 80, 무등산타워 6층	062)360-4654
경기기술융합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7번길 19, 6층	031)8006-1580
대구기술융합센터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 그랜드M타워 12층	053)550-1450
대전기술융합센터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3층	042)610-2279
부산기술융합센터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3층	051)606-7327
서울기술융합센터	서울 서초구 매향로 16, 하이브랜드 리빙관 11층	02)2155-3652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63빌딩 41층	02)3215-5900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한국반도체산업협회 5층	031)725-7857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1층	051)726-1300
익산기술평가센터 군산영업소	전북 군산시 대학로 35, 교보빌딩 2층	063)460-2800
청주기술평가센터 오창영업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76, 충북테크노파크 미래융합관 310호	043)251-1500
수원기술평가센터 오산영업소	경기 오산시 성호대로 84, 씨티은행 2층	031)369-5500
성남기술평가센터 판교영업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2, 한국반도체산업협회 5층	031)725-7800
광주기술평가센터 제주영업소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064)727-0271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지난 29년간, KIBO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기술금융 시장에 희망의 씨를 뿌리고 '기술평가'라는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며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꾸준히 정립해 왔습니다.

KIBO는 동북아 금융 허브 시대를 건안하는 금융공기업으로 기술금융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연구소 Tel. 1544-1120

www.kibo.or.kr